

孔世權*
曹愛姐**
金銀珠**

韓國 人口轉換의 構造的 特性

| |
|------------|
| Ⅰ. 研究背景 |
| Ⅱ. 研究方法 |
| Ⅲ. 研究結果 |
| Ⅳ. 結論 및 提言 |

I. 研究背景

人類史는 人間의 삶의 모습을 概觀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평범한 人間生活에서 주요 事實만을 줄거리로 엮어 놓은 것을 人類史라 한다면 集合概念으로 時代別 사람의 數를 헤아리고 그 덩어리의 構造的 特性和 分布 등을 分析 파악하며, 또 앞으로의 變動推移를 예측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마치 歷史의 連續性和 轉換의 의미는 人間生活의 紐帶와 世代를 달리하는 가운데서 이어져 왔듯이 오늘날의 社會도 어떤 形態로건 轉換은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의 人口像을 예측하며, 이에 따른 生存對備策을 논의하려 함은 人口와 社會·經濟는 不可分의 關係를 갖기 때문이다. 즉 人間은 獨自的으로 살기가 어려웠기에 共生의 터전으로 社會를 이루었고, 삶의 手段으로 經濟開發을 서둘러 왔던 점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生存體系에서의 보편적 現象일 뿐이다. 이 가운데서 보다 나은 삶, 健康하고 오랜 삶, 삶의 價値를 높이기 위한 努力등은 生活條件의 改善과 保健醫療의 발전으로 死亡率을 낮추는데 기여했고, 傳統的으로 높은 出生率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人口 增加現象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人口變動과 社會·經濟構造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는 가운데서 人口轉換이 이루어져 왔음은 人口와 社會·經濟構造가 서로 均衡을 이루려는 점에서 進行되고 있음을 뜻한다. 즉 주어진 生存條件에서 人口增加의 負擔을 調整하고 人口現象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員

에 따른 經濟發展을 서둘러 왔던 점은 今世紀에서의 일련의 조치들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人口現象은 巨視的 觀點에서 停滯된 것이 아니라 특정 秩序를 유지하면서 循環過程을 밟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循環은 어떤 始發點에서부터 終點을 향해 移行됨을 뜻하며, 그 가운데서 循環類型은 人口의 增加나 停止 또는 減少現象을 나타내면서 그 構造나 屬性을 달리하게 된다는 점이다.¹⁾

人口의 循環, 즉 人口現象의 轉換은 단순할 수 없고, 社會·環境條件과의 複合的인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人口變因을 出生, 死亡 또는 移動과 같은 動態事象으로 함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要因은 人間 본래의 生物學的 要因과 함께 社會·環境的 條件과의 力動的인 관계에서 變動함을 알 수 있다. 經驗的 觀點에서 死亡力의 低下는 人間 본래의 欲求充足을 위한 生活條件의 개선과 保健醫療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人口移動은 生存手段의 開發이나 보다 나은 生存條件을 찾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死亡力 低下로 나타나기 시작한 人口增加現象에 대하여는 人間이 자체적 出產調節로 人口增加의 罅(trap)을 피해 보자는 점에서 受胎調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短期的인 차원에서도 人口現象은 내부적 人口變因間의 力學關係, 또 이들 變因의 動因으로서의 生活條件에 따른 複合關係에서 나타나는 現象인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의 초점은 人口轉換의 理論²⁾³⁾이나 經驗的 事實을 論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解放後 韓國의 人口變動과 이러한 變動이 2000年代 初期에는 어떤 形態로 이어질 것이냐는 점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즉 韓國은 비교적 빠른 時間內에 農耕 社會가 產業社會로 바뀌면서 人口變動이 빨랐고, 그 빠른 速度의 人口變動이 앞으로 이어질 未來社會에서도 人口構造나 分布, 또는 屬性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마치 西歐의 人口轉換過程과는 달리 최근 新興開發國은 비교적 빠른 時間內에 死亡力 減少와 함께 뒤따른 人口增加現象을 극복하기 위해 出產調節政策이 出產力 轉換을 급속화 시켰으며, 産業化에 따른 人口의 都市化도急速히 진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人口 構造의 老齡化,⁴⁾ 地域間 人口構造의 隔差

1) J. Janer, "Population Growth in Puerto Rico and It's Relation to Time Change in Vital Statistics", *Human Biology*, Vol. 7, 1945.

2) D. Kirk, "A New Demographic Transition?", *Rapid Population Growth Consequence and Policy Implications*,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pp.123~147.

3) 黑田俊夫, 日本人口의 分析, 一粒社, 昭和 43年, 增補, 昭和 45年, 第1~2章 參照.

4) 孔世權 外 "韓國人口의 老齡化 特徵", 人口保健論集, 第7卷 第2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p. 171~183.

現象,⁵⁾ 家族構造의 變化와 解體現象⁶⁾ 등 多樣한 모습으로 基層化 또는 分化되고 있음
을 엿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經濟企劃院의 人口센서스와 人口動態申告資料를 기초로 발표한 人口現
況과 將來推計値는 그 結果가 人口學的 차원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開發計劃까지 수
정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韓國人口의 轉換構造는 또 다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人口抑制策을 國家政策으로 다루어 왔고, 또 經濟開發計劃
에서 人口變數를 주요 변수로 취급해 왔던 점 이외에도 人口過密 國家에서의 人口問
題는 社會問題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稿는 이러한 韓國人口의 轉換構
造를 概觀하면서 變化될 人口의 社會·經濟 또는 福祉的 觀點을 吟味코져 하려는데
焦點을 둔 것이다. 그러나 人口轉換이란 主題의 廣意性은 본 稿에서 이를 모두 含蓄할
수 없으며, 이는 일종의 試圖로서 앞으로 동 主題와 相關된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分
析으로 이를 補充 내지 修正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임을 忖언해 두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최근 人口問題의 浮上과 아울러 人口分析에 관한 方法論은 그 어느때 보다도 多角
의인 開發이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人口動態事象에 대한 推定과 아울러 人口變因과
他變因間의 因果關係, 또는 人口現象의 豫測 등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人口의 轉換
構造 分析은 人口分析의 포괄적인 領域으로서 이를 分析하는데는 특정 分析技法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人口의 轉換構造 分析은 각 動態事象의 時系列的 推定과 아울러 決定要因, 향후 動
向과 人口變動의 理論的 측면을 포괄한다.⁷⁻⁹⁾ 따라서 동 分析에서는 이제까지의 人口

5) 孔世權, 金銀珠, “地域別 人口構造의 特性”, 人口保健論集, 第8卷 第1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 pp. 3~30.

6) 孔世權 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7) Robert D. Retherfor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Reexamined”, Paper Presented at 7th Seminar in Population,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Honolulu, 1976.

8) K. Davis,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29, 1963. pp. 345~366.

9) J.C. Caldwell, “Toward a Restatement of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 No.3~4, 1976.

센서스 資料와 각종 調査資料 및 研究結果등을 종합적으로 檢討하고, 또 이들 資料의 다각적인 再分析을 통하여 動向推移 및 構造的 特性을 파악하려는데 그 焦點을 두었다.

이제까지 韓國에서의 人口資料는 1925年 이후 거의 每 5年마다 실시된 人口센서스資料가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1945年과 1950年の 경우는 日帝로 부터의 解放과 6.25動亂으로 센서스가 불가능 하였고, 센서스의 內容面에서도 최근에 이를수록 자체의 발전에 따라서 調査項目 및 製表結果에서도 同質性이 결여된 채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⁰⁾

그러나 人口에 관한 資料는 이들 센서스 資料外에도 人口動態申告資料가 있으며, 또 각종 出生力 및 家族計劃實態調査가 1964年 이후 時系列的으로 실시되어 비교적 자료활용이 용이했지만 死亡力에 관한 資料와 人口移動에 관한 資料는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어 이는 부분적인 資料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人口研究는 최근에 이를수록 活性化되어 왔음에 이들 研究結果는 동 分析에 매우 有用하게 活用될 수 있었다.

Ⅲ. 分析結果

1. 人口變動 推移

人口現象은 人間の 集合概念으로서 그 集團의 規模와 構成形態, 또는 屬性 등을 포괄하며, 이는 끊임없는 變化過程으로 설명된다. 어느 社會에서나 人口變動은 社會變遷과 맥락을 같이해 왔던 것 처럼 連續性을 지닌 人口轉換의 특징을 특정기간으로 한정시켜 살펴봄이 편리하다. 또 人口轉換의 설명은 實證的 統計資料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한 期間內에서 資料利用이 가능해야 함이 전제된다.

韓國에서의 人口센서스는 1925년부터 실시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정확한 人口資料의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그 후에 있어서도 1945年 解放을 전후한 기간이나 1950年代

-
- 10)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p.5, 1987, 및 각 센서스報告(1925~1980)를 參照.
- 11) 孔世權外, 韓國家族計劃事業, 家族計劃研究院, 1980에서 1960~1970年代의 調査事項을 볼 수 있고, 1980年 이후는 1981, 1985 또 1988년에 3회의 전국조사가 실시됨. 또 死亡力에 관한 研究는 孔世權 外, 韓國의 死亡力과 死亡原因,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에서 死亡力調査研究를 概觀해 놓았으며, 人口移動調査는 人口移動 特別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및 經濟企劃院이 共同實施함.

6.25動亂期에는 社會·政治的 混亂으로 체계적인 人口變動을 檢討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다. 이는 日帝期와 2次 世界大戰중에 많은 韓國人이 징용되었으며, 전쟁참여, 망명, 또는 유학 등으로 國外로 流出되었다가 解放과 함께 歸還하는 社會的 移動이 심했고, 國土分斷은 人口의 南北間 兩分과 그후 6.25動亂期는 南北間 人口의 再交流 및 戰爭死亡¹²⁾ 등이 그러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社會混亂期에는 젊은 층의 전쟁동원으로 婚期를 늦추게 되거나 自律的 出產抑制現象이 出產力 變化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케 된다.^{13~15)}

이처럼 韓半島의 人口는 解放과 6.25動亂을 전후한 時期가 일대 混亂期였으나 그 전 또는 후에는 비교적 安定期에서 점진적인 인구증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1925~1944年間은 日帝下에서 産業化初期를 맞으면서 당시의 出生率은 약 40 이상을 유지했고, 死亡率은 20이상을 유지하면서 年平均 人口增加率은 1.5~1.8퍼센트 수준에서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解放後는 海外同胞의 歸還으로 당시 年平均 人口增加率이 4.4퍼센트까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6.25動亂期에는 1.0퍼센트를 유지하는 屈曲을 찾아볼 수 있다.¹⁶⁾

이러한 激變期에서 1900年代 初期의 社會的 人口變動을 제외한 人口現象을 통털어서 初期變遷期로 칭할 수 있는점은 계속해서 高出產率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死亡

12) C. Kim, *Population and Economy of Korea* (Tokyo, 1965, pp. 25~39)에서 1910~1944年間 韓國人의 海外居住者는 日本의 경우 1910년에 4천명에 달하던 것이 1925년에는 187천명으로 증가되었고, 해방전 1944년에는 1,911천명으로 증가되었다.

또 滿洲의 경우는 1910년에 韓人居住者가 202천명이던 것이 1925년에는 532천명으로, 그리고 1942년에는 1,512천명으로 推定되고 있다. 또 동 기간중 한국의 外國人居住는 1925년에 503천명이던 것이 1944년에는 785천명으로, 이는 90%이상이 日本人이었다. 그러나 解放과 함께 海外로 부터의 歸還同胞는 日本과 滿州등으로 부터 각각 1百萬명씩 약 2百萬명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그외 6.25動亂중 北韓으로 부터 南韓으로의 避難民은 20萬명 정도에 이르며, 1955年 韓國銀行이 발간한 韓國經濟年鑑은 6.25動亂時 戰爭死亡者를 1,293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13) Lee-Jay Cho,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 of Korea*, Papers of th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No.19, East-Weast Center, Honolulu, 1973, pp. 1~3.

14) C. Kim, *Population and Economy of Korea*, Tokyo, 1965.

15) Y.S. Chang, *Population in Early Modernization of Korea*,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65.

16) Yun Kim, "Population Projections for the Rep. of Korea, 1955~1995", Census Council, Ministry of Home Affairs, *Basic Documents Pertaining to Korean Statistical Activities*, (Revised edition, 7), Seoul, 1960.

力の 감소로 점진적인 人口增加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에서이다. 「커우질」(Cowgill)¹⁷⁾은 장기안목에서 人口轉換의 類型을 “S”字形으로 설명하려 하며, 그의 理論에 따라서 韓國人口의 原始的 停滯期를 15世紀 이전에 多産多死 現象으로 거의 인구증가가 없었던 시기로 본다면 16世紀부터 18世紀末까지는 약 6百萬名의 人口가 약 7百萬名으로 증가한 前近代期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¹⁸⁾ 「빈스톡」(Binstock)¹⁹⁾이 지적하는 人口의 原始的 停滯期는 出生 및 死亡率이 각각 약 50水準을 유지하여 人口增加現象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狀態로서 平均壽命은 약 20歲水準에 이르는 경우로 지칭하고 있다. 또 人口의 前近代期는 出生率이 44, 死亡率이 34水準으로 약 1퍼센트의 人口增加率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平均壽命은 약 30歲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의 韓國人口의 현상은 이에 비견되는 것이다. 또 人口의 轉換期는 出生率이 46, 死亡率은 16水準으로 약 3퍼센트의 人口增加率을 나타내면서 平均壽命을 50歲 정도인 경우로 지칭한다고 할 때 이러한 期間은 韓國의 1955~1965年間に 비유되지만 급속한 産業化와 體系的인 出産調節政策이 이러한 轉換期를 단축시키게 했던 것이다.

「빈스톡」이 지적하는 人口의 近代化期는 出生率이 20, 死亡率이 10水準으로 1퍼센트의 人口增加率을 유지하고, 平均壽命이 70歲 水準인 경우를 말하지만 반드시 이 경우와 같을 수는 없더라도 韓國은 1985~2005년에 해당될 것이다. 또 人口의 近代化 定着期는 出生과 死亡率이 각각 13水準을 나타내어 人口增加가 停止狀態이고 平均壽命은 약 78歲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時期는 韓國에서 2020年代에나 맞이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처럼 人口轉換의 특징은 西歐의 經驗的 事實을 토대로 類型化시켜 놓은 점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들 경험을 뒤따르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人口變動은 社會·經濟條件과 複合的인 關係에서 나타나는 現象이란 점에서 최근 開發途上國들은 보다 특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開發途上國이 西歐에서 장기간에 걸쳐 개발한 技術을 바탕으로 産業화를 시작하는 가운데 먼저 人口學的인 측면에 死亡率의 감소가 人口暴增現象을 나타내었고, 뒤따라

17) D.O. Cowgill, “The Theory of Population Growth Cycle”, *American J. of Sociology*, 1949.

18) Y. Ishi, “Historical Transition of Korean Population”, in Minami (ed.), *Economic Analysis of Korean Population*, Institute for Developing Economies, Tokyo, 1971, pp. 18~21.

19) Robert H. Binstock and Shanas, Ethel,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6.

Table 1. Pattern of Korean Population Transition

韓國人口轉換의 構造的 特性

| Population Index | Primitive Stationary | Pre-modern | Transitional | Modern | Modern Stationary |
|------------------------------|----------------------|------------|--------------|-----------|-------------------|
| Time | ~1910 | 1920~1945 | 1955~1965 | 1985~2000 | 2010~ |
| Birth rate | -50- | -45- | -43- | -17- | -13- |
| Death rate | -50- | -25- | -13- | -7 | -13- |
| Annual growth rate(%) | -0- | -2- | -3- | -1- | -0- |
| Child-woman ratio | 70 | 75 | 65 | 30 | 24 |
| Percent 65 & over | -4- | -4- | -4- | -6- | -13- |
| Median age | -10- | 20 | 20 | -30- | -40- |
| Expectation of life at birth | -24- | 34 | -55- | -70- | -78- |

UN.,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Monograph Series, No.2, 1975:EPB, Projected Population in 1988.

서 人口增加抑制策으로 出産調節을 서두르게 되어 새로운 人口轉換形態를 創出케 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즉 빠른 템포의 死亡力低下와 뒤따른 出産力 轉換은 開發途上國들에서 社會·經濟 및 文化的 背景과의 복합적인 關係에서 多様な 現象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西歐에서는 이미 後期産業社會에서 人口增加의 停止 또는 減少現象까지 나타나면서 새로운 人口類型을 나타냈고, 東歐나 北美, 그리고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은 近代化 定着期의 人口類型에 進入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는 달리 東아시아는 이미 東歐나 北美가 경험했던 前近代化期에서 近代化期로 移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中東·西아시아, 南美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아직도 人口의 轉換期 또는 前近代期에서 약 2~3퍼센트의 높은 人口增加率을 유지하고 平均壽命도 30~50歲 水準²⁰⁾²¹⁾을 유지하고 있어 이 지구상의 人口類型은 社會·經濟構造의 變化와 걸맞게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韓國人口의 轉換은 보다 특징적일 수 밖에 없다. 韓半島의 人

20) Population Reference Bureau, 1986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ashington D.C., 1986.

21) J. Shankar Singh (ed.), *Populi*. J. of the UNFPA, Vol.14, No.1, 1987.

口는 1925년에 약 1千9百萬名으로 推定되며, 이는 1910年の 약 1千3百萬名の 推定人口²²⁾와 비교할때 1910~1925年間の 日帝初期에서 年平均 人口增加率は 2.6퍼센트 수준으로 推定된다. 정확한 人口統計의 未備는 人口增加率 자체도 문제시 할 수 있지만 당시 韓日合邦과 社會的 混亂, 西歐文明의 流入등이 人口變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의심치 않게 된다. 그러나 1925~1944年間の 日帝後期에서 年平均 人口增加率は 1.45~1.82퍼센트 水準으로 점진적인 增加樣相을 보여왔다. 당시 出生率은 45~42水準이었고, 또한 死亡率은 26~24水準으로 감소되었지만 人口의 海外移出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이 당시의 社會像을 잘 代辯하는 점이다. 즉 國家를 잃은 상황에서 海外亡命이 늘어나게 되었고, 2次世界大戰 중 젊은層의 戰爭參與와 海外留學도 증가하면서 이는 人口增加率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産業化初期에서 死亡力低下가 平均壽命의 延長에도 기여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러나 당시 社會混亂이 出産力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지만 死亡力의 개선이 그렇게 현저했던 것이 아니고, 多産觀念의 보편성에서 婦人當 合計出産率은 6.0이상을 유지한 高出産期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때 1900年代 前期의 韓半島 人口는 前近代期에서 새로운 變化를 胎動하기 시작한 시기로 보여진다. 즉 閉鎖되었던 朝鮮社會가 西歐의 영향을 받으면서 社會·政治的 混亂이 거듭되는 가운데 인구변동이 시작된 것이다. 1940年代 初期에 日本(200萬명), 滿洲(150萬명) 및 其他地域(9萬명)에 居住했던 韓人數를 考慮하면 19世紀 前半期에 약 13퍼센트의 韓人이 移出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²³⁾ 이러한 海外同胞가 解放과 함께 約 200萬명이 歸還²⁴⁾함으로써 이는 19世紀에서 첫번째 人口의 大移動이 나타난 것이다. 또 解放과 함께 國土는 分斷되었고, 이는 人口를 兩分시켰으며 分斷狀況에서의 1946年 韓國의 人口는 19,369千명, 北韓의 人口는 9,257千명으로 推定되고 있다.²⁵⁾²⁶⁾ 이러한 人口는 1950年 6.25動

22) 經濟企劃院, 韓國人口統計年鑑, 1972.

*이 점은 1935~1940年間 年平均 人口增加率이 그 이전 또는 이 이후보다 현저한 低下를 보이는 것으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3) Bureau of Statistics, Japan, *Report of Population Census, 1920, 1930, 1935. and 1940*; C. Kim, *Population and Economy of Korea*, Tokyo, 1965, pp. 25~26.

24) 韓國銀行, 韓國經濟年鑑, 1949 및 1949年 國勢調查.

25)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70 및 國土統一院 資料

26) 李時伯, “南北韓人口의 長期展望과 人口學의 比較分析”, 韓國人口學會誌, 第8卷 第2號, 1985, pp. 11~28.

亂을 계기로 일대 南北韓 交流가 있었음을 생각할때 人口의 社會的 移動은 또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즉 6.25動亂은 戰爭死亡(약130萬명)과 南北韓移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가 어렵지만 韓半島 人口에서 또 다시 一大 受難을 겪게 되었음이 틀림없다.²⁷⁾

6.25動亂後부터 人口는 固着狀態에서 1955年の 南韓 人口는 21,502千명으로 추정

Table 2. Population of Korean in Census Years 1925 to 1985

人口規模의 變動推移 : 1925~1985

| Date of Census | Korean Population | Increase Over Preceding Census | Annual Increase Rate (percentage) |
|----------------|----------------------|--------------------------------|-----------------------------------|
| Oct.1, 1925 | 19,020 | - | - |
| Oct.1, 1930 | 20,438 | 1,418 | 1.45 |
| Oct.1, 1935 | 22,208 | 1,770 | 1.63 |
| Oct.1, 1940 | 23,547 | 1,339 | 1.18 |
| May 1, 1944 | 25,120 | 1,573 | 1.82 |
| May 1, 1944 | 16,244 ^{a)} | - | - |
| May 1, 1949 | 20,189 | 3,923 | 4.40 |
| Sept.1, 1955 | 21,502 | 1,336 | 1.02 |
| Dec.1, 1960 | 24,994 | 3,492 | 2.88 |
| Oct.1, 1966 | 29,160 | 4,166 | 2.71 |
| Oct.1, 1970 | 31,435 | 2,279 | 1.90 |
| Oct.1, 1975 | 34,688 | 3,253 | 1.99 |
| Nov.1, 1980 | 38,124 | 3,436 | 1.89 |
| Nov.1, 1985 | 40,806 | 2,682 | 1.36 |

Sources:(1)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Population Census Reports*, 1925, 1930 and 1972;and Korea Statistical Yearbook 1972, op. cit.

(2) EPB, *Korea Statistical Yearbook*, 1973. op. cit., pp.38 and 39

(3) Provisional Results of the 1975 Census.

a) Estimated by Lee-Jay Cho.

27) 韓國銀行, 韓國經濟年鑑, 1955 동 報告에서 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온 飢民은 160萬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Trewartha와 Zelinsky는 66~83萬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Table 3. Crude Birth Rate, Crude Death Rate, and Expectation of Life at Birth in Korea:1925~1985
 人口動態率 및 期待餘命의 變化推移

| Years | Crude Birth Rate | Crude Death Rate | Total Fertility Rate(per woman) | Expectation of Life at Birth | |
|-----------|------------------|------------------|---------------------------------|------------------------------|---------|
| | | | | Males | Females |
| 1925~1930 | 45 | 26 | 6.2 | 37.9 | 37.2 |
| 1930~1935 | 44 | 24 | 6.1 | 40.4 | 40.1 |
| 1935~1940 | 44 | 23 | 6.2 | 40.4 | 41.7 |
| 1940~1945 | 42 | 23 | 6.1 | 42.0 | 44.8 |
| 1945~1950 | 40 | 23 | 6.0 | - | - |
| 1950~1955 | 40 | 33 | 5.5 | - | - |
| 1955~1960 | 45 | 16 | 6.3 | 51.1 | 53.7 |
| 1960~1965 | 42 | 15 | 6.0 | 52.7 | 57.7 |
| 1965~1970 | 32 | 13 | 4.5 | 59.4 | 64.1 |
| 1970~1975 | 24 | 7 | 3.9 | 59.8 | 66.7 |
| 1975~1980 | 23 | 7 | 3.2 | 62.7 | 69.1 |
| 1980~1985 | 17 | 6 | 2.2 | 63.6 | 70.8 |

資料 : 본 表에서 1925~1970年間은 Tai-Hwan Kwon, et al.,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5, pp. 12~23에 의한 것이며 1970년 이후는 經濟企劃院 人口센서스에 의한 推定値임.

되며, 이는 1949年 20,189千명과 비교하면 약 1퍼센트의 年平均 增加率을 推定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6.25動亂이 韓國民에 미친 의미는 再照明되어야 하겠지만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量的인 人命損失과 南北韓 人口再交流라는 점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 動亂중 젊은 層의 動員과 人命損失은 婚期를 늦추게 했거나 많은 未亡人을 남겨놓게 했던 점이 出産力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미루어 생각하게도 된다. 이러한 영향은 動亂後에 다시 結婚 및 出産의 遲滯現象을 회복시키면서 소위 베이비·붐(baby-boom)現象을 가져오게 한데도 遠因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955~1960年間の 出生率은 45水準을 유지했고, 死亡率은 15水準으로 低下하면서 약 3퍼센트 水準의 人口增加率을 보인 것이 人口轉換에서 새로운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실제 人口增加數面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年平均 70萬 명씩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높은 人口增加率은 1960年代 이후 出産調節政策을 유도케 하였고 그 후에도 인구증가는 지속되어 韓國에서의 베이비 붐期(「빈스톡」이 지적인 轉換期)는 1955~1965年間에 걸쳐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人口增加現象에 대한 對應策이 出産調節을 위해서 家族計劃事業의 형태로 나타난 점은 人口政策에 새로운 起源이 된다. 여기서 家族計劃事業의 기본 목표는 낮아지는 死亡力水準으로 出産力을 접근시켜 보려는데 焦點을 두었고, 이는 원치않는 妊娠은 避妊을 통해서 防止하려는 手段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避妊手段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고 社會·文化的 要因과 複合關係에서 轉換이 비롯된다는 점에서 家族計劃事業의 성과는 점진적일 수 밖에 없었던 점이 된다. 특히 子女觀의 변화는 夫婦들이 적은 子女數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社會條件이 갖추어 졌을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할때 經濟開發政策은 社會·經濟構造를 변화 시키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가족계획사업은 出産調節의 주도적 役割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60年代 이후 經濟開發計劃과 연계추진된 체계적인 家族計劃事業은 점진적으로 人口增加率 鈍化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지만 그 현저한 結果는 1980年代에 들어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할 당시 可妊期 對象의 出産行動의 變化에서 보다는 年齡構造의 轉換으로 새로운 可妊期對象이 형성되면서 少子女價値가 보다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1960年代부터의 높은 教育熱로 높은 수준의 教育을 받은 對象이 出産期에 突入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1955~1960年間에 약3퍼센트를 유지했던 人口增加率이 1960~1966年에 들어서면서 2.7퍼센트로 鈍化되기 시작한 점은 人口增加率面에서 그 頂點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動因이 家族計劃事業의 성과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960~1966年間에도 실제 연평균 人口增加數는 698千명으로 1955~1960年間の 연평균 人口增加數 694千명과 비교할 때 다를바 없어 韓國의 「베이비·붐」期는 1955~1966年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처럼 체계적인 家族計劃事業의 확대와 함께 避妊實踐率의 上昇은 出産力을 低下시키면서 人口增加率도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현저한 下向趨勢를 나타내게 되었다.

1985年の 人口 센서스는 총 인구를 40,806千명으로, 1980~1985年間 年平均 人口增

加率は 1.4퍼센트를 제시하고 있어, 지난 4半世紀間 人口增加率이 半減된 結果를 엿볼 수 있다. 또 1985年の 推定 出生率은 17, 死亡率이 6으로 報告되고 있지만 婦人當 合計出産率은 2.1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人口構造上 再生産層의 肥大가 出生率을 낮추는데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만 1980年 2.8水準에 있던 合計出産率이 급강하한 점은 주목되어진다. 이러한 出産力의 轉換은 可妊對象層의 轉換과 함께 少子女觀의 定着 등 여러 측면에서 엿보이게 하지만 앞으로의 人口展望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人爲的인 出産調節이 강구되면서 人口展望은 보다 어렵게 된다. 科學의 발달이 획기적인 死亡力轉換을 이루면서 出産力轉換도 불가피하게 했던 점은 生存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우연의 발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死亡構造가 “U”字型에서 “J”字型으로 바뀌게 된 점은 外因性疾患인 傳染性 내지는 寄生蟲性 疾患이 人爲的 으로 統制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은 人間의 기본욕구가 科學의 허용한계에서 나타난 結果일 뿐이다. 그러나 出産力의 轉換은 단순히 生命科學의 발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産業社會에서 子女의 效用性和 價値는 傳統概念을 초월하면서 出産力轉換도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子女를 가져야만 한다는 絶對性의 弱화나 적은 자녀로서 만족할 수 있는 社會的 霧圍氣가 生存을 위해서는 社會에 適應할 수 밖에 없다는 理論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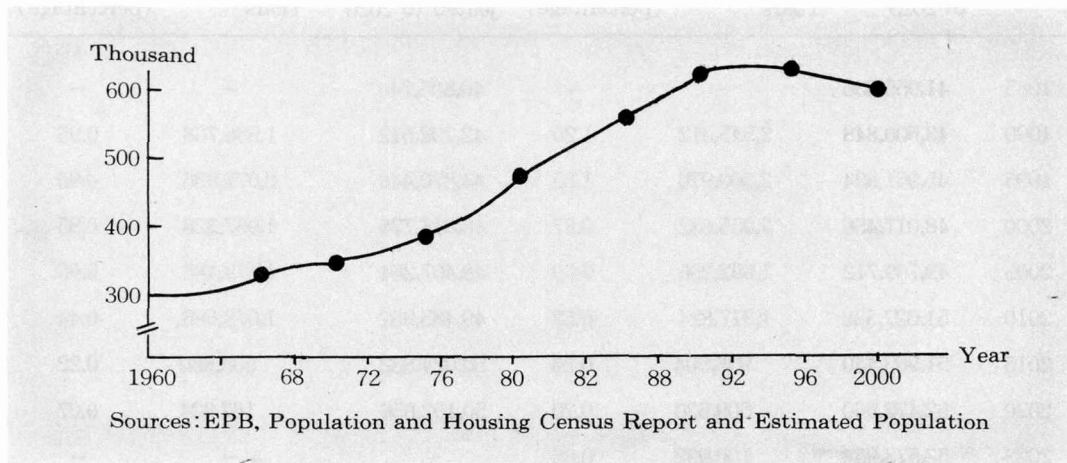
이는 婦人의 教育水準과 就業形態에 따라서 差異出産力을 나타내는 점으로도 잘 입증된다. 夫婦가 모두 높은 教育水準에 있고 家庭과는 獨立된 專門職에 종사할 경우에 子女의 出産과 養育이 社會活動에 지장을 준다는 점은 子女에 대한 評價를 달리 하게 되는 것이다.²⁸⁾ 물론 이러한 경우는 아직까지 社會의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예이지만 産業社會가 성숙단계로 접어들면 그럴수록 社會構造는 한층 더 專門的 有機體制로 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보다 빠른 出産力轉換을 예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1960年代 이후 계속되어 온 教育熱氣는 競爭社會로 변모시키면서 世代間層化와 價値構造의 多樣化가 社會價値의 求心力을 잃게 하였고, 高學歷과 晩婚, 女性就業의 普遍化는 少子女價値에 基層化되어 간다고 할때 오늘날 出生率의 급변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28) 曹愛姐 外, “婦人의 就業과 出産力과의 關聯性 研究”, 人口保健論集, 第8卷 第1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약4千2百萬명에 달하는 인구는 2020年頃에 약5千2百萬명 수준에서 정지인구를 예상케 되며, 그 결과는 인구동태율에서 출산력의 정체와 사망력의 상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1988年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출산력조사는 婦人當 合計出産率을 1.7 水準으로 推定하고 있는바, 이는 1985年の 2.1의 代替水準 보다 0.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또 婦人當 合計出産率이 代置水準 이하로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人口構造에서 可妊期 婦人數에 따라서 出生率(CBR)이 결정³⁰⁾³¹⁾ 되므로 단기간내에 出生率의 저하는 현저히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高出産期 婦人人口는 1990年代 초기를 정점으로 下向趨勢를 나타내고, 2000年代 이후부터는 출산력 저하가 인구증가율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사망력의 변화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자료의 미비로 예측이 어렵지만 최근 6水準의 推定 死亡率이 지속되면서 2000年代 이후부터는 人口의 老齡化에서 老人死亡率이 높아져 2005年에 7水準으로, 2020年에는 10水準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停止人口를 유도케 될 것이다.³²⁾

Figure 1. Changing Pattern of Female Population(20~34 Age):1960~2000

高出産 女性人口의 變化



29)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查, 1985 및 1988.

30) $CBR = GFR \cdot ft_{15-49} / Pt$

여기서 CBR = Crude Birth Rate

GFR = General Fertility Rate

Pt = Mid-population in t years

ft = Female population of aged 15~49 in t years

31) 孔世權, 張英植, “人口變動에 따른 出産調節戰略小考”, 人口保健論集, 第2卷, 第2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32) 經濟企劃院, 最近 人口動態現況 및 新人口推計, 1988(프린트物)

이러한 人口轉換에서 성급한 우려는 人口減少에 대한 관심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구감소현상을 나타내는 국가는 덴마크(-0.06%), 헝가리(-0.03%), 오스트리아(-0.01%), 서독(-0.23%), 룩셈부르크(-0.04%) 등 西北歐의 일부국가에서 미미한 감소가 있을 뿐 이는 장기적 현상도 아닌 것이다.³³⁾ 또 西歐의 人口轉換을 고려하면 人口減少現象이 2世紀만에 나타난 것이다. 물론 韓國이라고 해서 人口減少가 없으란 법도 없겠지만 儒敎文化를 바탕으로 한 家族主義的 觀念이 쉽게 바뀌어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인구의 감소까지를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일시적인 감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로 부상된 상황에서 얼마간의 인구감소가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Table 4. Korean Population Projection:1985~2023

韓國人口推計:1985~2023

| Years | Population Projected to 2023 | Increase Over Preceding Years | Annual Increase Rate (percentage) | Revised Population Projected to 2020 | Increase Over Preceding Years | Annual Increase Rate (percentage) |
|-------|------------------------------|-------------------------------|-----------------------------------|--------------------------------------|-------------------------------|-----------------------------------|
| 1985 | 41,055,536 | — | — | 40,805,744 | — | — |
| 1990 | 43,600,848 | 2,545,312 | 1.20 | 42,792,512 | 1,986,768 | 0.95 |
| 1995 | 45,961,824 | 2,360,976 | 1.05 | 44,870,448 | 2,077,936 | 0.95 |
| 2000 | 48,017,456 | 2,055,632 | 0.87 | 46,827,776 | 1,957,328 | 0.85 |
| 2005 | 49,709,712 | 1,692,256 | 0.69 | 48,407,264 | 1,579,488 | 0.66 |
| 2010 | 51,027,536 | 1,317,824 | 0.52 | 49,485,952 | 1,078,688 | 0.44 |
| 2015 | 51,963,440 | 935,904 | 0.36 | 50,024,832 | 538,880 | 0.22 |
| 2020 | 52,472,960 | 509,520 | 0.20 | 50,192,656 | 167,824 | 0.07 |
| 2023 | 52,573,952 | 100,992 | 0.06 | — | — | — |

Source:EPB, Projected Population in 1986, 1988

2. 人口移動의 轉換

한 社會에서의 人口變動은 그 規模와 함께 移動과 分布面에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人口變化를 토대로 하는 轉換의 特徵은 그 社會의 發展過程과 脈絡을 같이 하게

33)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New York, 1986, pp. 58~59.

된다. 今世紀에서 韓國人口는 점진적인 人口增加와 함께 移動도 빈번해지면서 특정지역으로의 密集化 現象이 加速化되어 왔다.

1900年代 初期만 해도 人口增加와 人口移動은 靜的인 상태였지만 日帝期에 접어들면서 인구는 動的으로 海外流出과 함께 증가성향을 보여왔다. 여기서 解放을 전후한 인구의 海外流出과 歸還, 南北間의 人口兩分 및 6.25動亂期의 南北間 人口의 再交流 등을 社會·政治的인 영향으로 본다면 1960年代 이후에는 産業化의 영향으로 인한 人口의 都市集中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人口變動에서의 人口增加와 分布 및 그 構造的 特性은 複合性을 갖고 나타나며, 이에 대한 관심은 國家開發이라는 측면과 관련을 갖게 된다. 즉, 近代社會가 人口變化를 촉진시켜 왔다면 人口變化에 따른 社會的 對應策은 開發動機로서 설명할 수 있다. 즉 都市를 據點으로 시작한 産業化는 都市의 人的, 物的 資源과 流通의 便宜性 등에서 이루어 졌지만 이는 都市에 人口流入을 촉진시켰고 끝내는 또 다른 工業團地를 造成함으로써 새로운 工業都市의 建設이 既存 都市와 함께 都市人口를 증가시켜 온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産業化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인구의 都市化는 相乘作用을 나타내면서 급속히 증가해 왔음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점은 1970~1975年間 세계인구의 증가율이 약2.0퍼센트를 유지했던데 비해 都市人口의 증가율은 2.6퍼센트를 유지했고, 1980~1985年間은 세계인구의 증가율이 1.7퍼센트인데 비해 도시인구의 증가율은 2.3퍼센트를 유지했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0~2005年の 세계인구 증가율이 1.4퍼센트를 유지하는데 비해 도시인구 증가율은 2.4퍼센트를 유지할 것이고, 또 2020~2025년에는 세계인구 증가율이 1.0퍼센트인데 비해 도시인구 증가율은 1.9퍼센트를 유지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³⁴⁾ 人口增加와 인구의 都市集中이 相互 密接한 관련을 갖고 나타나는 裏面에는 産業化가 技術集約的 量産體制로서 人力集中을 要求했고, 또 産業의 結果와 潛在力 또는 文化的 메리트(merit)가 都市에 偏重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都市의 巨大화와 함께 群小都市의 出現이 都市人口率을 增大시켜 온 결과로 볼수 있는 것이다.

都市의 概念은 識者에 따라 見解를 달리하고 있지만 政治·産業 또는 文化的 據點을 이루고 人口集結의 表象임은 틀림없다. 1985年현재 世界的으로 都市人口는 41퍼센

34) United Nations, *The Prospects of World Urbanization*, New York, 1986.

트를 점유하고 있으며, 先進國의 경우는 72퍼센트인데 비해 開發途上國은 31퍼센트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世界人口중 都市人口率은 2000年頃에 47퍼센트로, 그리고 2025년에는 60퍼센트로 증가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으며, 先進國의 경우는 2000년에 75퍼센트로, 2025년에는 78퍼센트로 증가할 전망인데 비해 開發途上國은 2000년에 39퍼센트, 2025년에는 57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보아 開發途上國의 都市化가 한층 더 빠르게 進展될 전망이다.³⁵⁾

이러한 인구의 都市化 趨勢는 韓國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이 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전망이다. 즉 1920年代까지만 해도 都市人口率은 5퍼센트에 불과³⁶⁾했지만 1944년에는 14個 都市에서 1,950千명으로 총인구중 12퍼센트를 유지했다. 이러한 都市의 特性은 주로 行政都市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즉 오늘날과 같이 産業流通體系로서 都市가 발전된 점과는 달리 地域別 産業을 管理하기 위한 형태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産業化가 시작되면서 1955년에는 25個 都市에서 25퍼센트의 都市人口率을 점유하여 해방후 10년만에 都市人口率은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都市數의 증가 및 都市化率은 계속 增大되어 왔다. 즉 1955~1965年間의 都市人口增加率은 약6퍼센트를 유지했으나 1970年후부터는 점차 鈍化되기 시작해서 1970~1975年間은 5.5퍼센트를 유지했고, 1980~1985年間은 4.2퍼센트를 유지하게 되었다.

人口增加率은 1955~1965년에 약3퍼센트에서 頂點을 이룬 반면 都市人口 增加率은 1960~1966년에 약7퍼센트에서 頂點을 이루면서 下向趨勢를 나타내게 되었다. 여기서 서울의 人口增加는 보다 높은 水準을 유지하여 1950~1955年間에 서울人口의 增加는 2퍼센트를 유지하였으나 1970년까지는 7퍼센트를 나타내어 급속히 증가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1985年 전국적으로 50個 市에서 都市人口率은 65.4퍼센트로 전체 국민의 2/3가량이 都市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서울인구가 24퍼센트를 점유한다.(表 5참조) 또한 1988年³⁷⁾에는 都市人口率이 69퍼센트로 集計되고 있다. 이러한 都市化 趨勢는 2000년에 78.3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유우엔(UN)의 推計인 79.6퍼센트 보다는 다소 낮은 水準이며, 2025년에는 87.6퍼센

35) UN, *ibid.*, 1986.

36) 曹愛姐 外, “韓國의 都市化 傾向에 관한 考察”, 韓國人口學會誌, 第6卷, 第1號, 1983.

37) 經濟企劃院, 앞글, 1988.

트까지 증가하여 그 당시 先進國의 수준인 77.8퍼센트 보다는 훨씬 높은 水準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³⁸⁾

韓國의 都市形成過程은 1960年代 이전까지만 해도 行政中心 地域의 都市化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960~1970年代는 10個 市가 형성되었는데 이 중 議政府, 城南, 安養, 富川 등 4個 市는 首都圈 人口集中에 따른 衛星都市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産業化 地域의 市昇格과 함께 都市形成의 특징을 찾아보게 된다. 그러나 1980年代는 주로 産業化 地域이 市로 昇格됨과 아울러 首都圈 人口膨脹을 分散하기 위한 都市開發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처럼 既存都市의 人口膨脹과 아울러 衛星都市의 建設은 既存都市가 人口受容에 限界性을 露呈하고 있으며, 産業據點 地域의 都市化는 産業化가 人口集中을 야기시키면서 나타난 점이라 하겠다.

특히 大邱, 仁川, 光州, 大田 등의 直轄市化는 巨大都市圈의 出現을 의미하며, 아울러

Table 5. Population of the Urban Areas and Seoul for 1944~1985

都市地域 및 서울 人口의 增加推移 : 1944~1985

| Year | Whole Country (thousands) (1) | Annual Increase Rate | Urban (thousands) (2) | Annual Increase Rate | Number of Urban | Seoul (thousands) (3) | Annual Increase Rate | Percentage | | |
|------|-------------------------------|----------------------|-----------------------|----------------------|-----------------|-----------------------|----------------------|------------|-------|-------|
| | | | | | | | | (3/2) | (3/1) | (2/1) |
| 1944 | 16,565 | 3.92 | 1,950 | 11.15 | 14 | 825 | 10.84 | 42.3 | 5.0 | 11.8 |
| 1949 | 20,167 | 1.07 | 3,458 | 6.90 | 14 | 1,438 | 1.45 | 42.5 | 7.1 | 17.1 |
| 1955 | 21,502 | 3.00 | 5,263 | 5.66 | 25 | 1,569 | 8.73 | 29.8 | 7.3 | 24.5 |
| 1960 | 24,989 | 2.57 | 6,997 | 5.53 | 27 | 2,445 | 7.20 | 34.9 | 9.8 | 28.0 |
| 1966 | 29,160 | 1.43 | 9,780 | 6.51 | 32 | 3,793 | 8.89 | 38.8 | 13.0 | 33.5 |
| 1970 | 30,882 | 2.33 | 12,710 | 5.54 | 32 | 5,433 | 4.73 | 42.7 | 17.6 | 41.2 |
| 1975 | 34,707 | 1.51 | 16,793 | 4.86 | 35 | 6,890 | 3.87 | 41.0 | 19.9 | 48.4 |
| 1980 | 37,436 | 1.55 | 21,434 | 4.18 | 40 | 8,364 | 2.83 | 39.0 | 22.3 | 57.3 |
| 1985 | 40,448 | | 26,443 | | 50 | 9,639 | | 36.5 | 23.8 | 65.4 |

Source: Economic Planning Board,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1949~1985;

Annual Economic Review of Korea, 1948.

38) UN, *ibid.*, 1986.

Table 6. Projected Population and Annual Increase Rate by Urban and Rural:1985~2000

都市·農村別 推計人口 및 年間增加率

| Year | Whole Country | | Urban | | Rural | |
|------|--------------------|----------------------|-------------------|----------------------|-------------------|----------------------|
| | Population(%) | Annual Increase Rate | Population(%) | Annual Increase Rate | Population(%) | Annual Increase Rate |
| 1985 | 40,805,744 (100.0) | 0.95 | 27,380,654 (67.1) | 2.24 | 13,425,090 (32.9) | -1.98 |
| 1990 | 42,792,512 (100.0) | 0.95 | 30,635,159 (71.6) | 1.95 | 12,157,353 (28.4) | -1.84 |
| 1995 | 44,870,448 (100.0) | 0.85 | 33,782,960 (75.3) | 1.63 | 11,087,488 (24.7) | -1.72 |
| 2000 | 46,827,776 (100.0) | | 36,656,783 (78.3) | | 10,170,993 (21.7) | |

Source:EPB, Projected Population, 1988, 11.

Table 7. Recent Urbanization Pattern

年度別 市設置 및 昇格現況

| Year | Special Cities | Other Cities | Total |
|-----------|----------------------------------|--|-------|
| ~1959 | Seoul (1) | Suwon, Chunchon, Wonju, Kangnung, Chongju, Chungju, Taejon, Chonju, Kunsan, Iri, Mokpo, Yosu, Suncheon, Pohang, Kyongju, Kimchon, Masan, Chinhae, Chungmu, Samchonpo, Cheju (21) | 22 |
| 1960~1969 | Pusan (1) | Uijongbu, Sokcho, Chonan, Andong, Ulsan (5) | 6 |
| 1970~1979 | - | Songnam, Anyang, Puchon, Kumi (4) | 4 |
| 1980+ | Daegu*, Incheon* Kwangju* (3) | Kwangmyong, Songtan, Tongduchon, Ansan, Kwachon, Kuri, Pyongtaek, Tonghae, Taebaek, Samchok, Chechon Kongju, Taechon, Onyang, Chongju, Namwon, Naju, Yochon, Songjong, Kwangyang, Yongju, Yongchon, Sangju, Chomehon, Changwon, Kimhae, Sogwipo (27) | 30 |
| Total | 5 | 57 | 62 |

Note:These were set up as a city in 1949.

Source:Ministry of Home Affairs, *Municipal Yearbook of Korea*, 1987, pp.20~34.

Table 8. Percent Distribution of 5 Major Cities Population in the Total Urban Population by Year:1985~2000

全體 都市人口에 대한 5大都市人口 比率

(unit:%)

| Cities | 1985 | 1990 | 1995 | 2000 |
|--------------|--------------|--------------|--------------|--------------|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 (Urban pop.) | (27,380,654) | (30,635,159) | (33,782,960) | (36,656,783) |
| Seoul | 35.5 | 35.0 | 34.6 | 34.4 |
| Pusan | 12.9 | 12.4 | 12.0 | 11.8 |
| Daegu | 7.5 | 7.3 | 7.2 | 7.2 |
| Incheon | 5.1 | 5.4 | 5.6 | 5.8 |
| Kwangju | 3.8 | 3.9 | 4.0 | 4.1 |
| Other cities | 35.2 | 35.9 | 36.5 | 36.9 |

Source: Same as Table 5.

群小都市의 난립은 衛星都市 및 産業都市의 出現에서 특징을 지닌다. 이 중 서울인구는 최근 전체 都市人口의 36퍼센트를 점유하며, 直轄市의 人口를 합했을 때는 전체 都市人口의 2/3가 5個 大都市의 人口로 구성됨을 볼 수 있다.(表 7 및 8 참조)

이상과 같은 都市化에서도 특히 서울人口의 증가와 首都圈의 人口集中은 보다 特徵的이다. 서울인구는 解放을 後해서 1,000千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1960년에는 2,445千명으로 20年間に 2.5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1970년에는 5,433千명으로 10年만에 다시 2배로 증가한 셈이며, 1990年の 서울인구는 10,719千명으로 推定하고 있어 20年만에 또 다시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表 9 참조)

또 서울인구와 仁川 및 京畿道의 市部人口를 首都圈人口로 가정했을 때, 이러한 首都圈人口는 1960년에 2,855千명에 이르렀으나 1970년에는 6,247千명으로, 그리고 1980년에는 10,743千명에 달하였으며, 1985년에는 13,317千명으로 增加한 점에서 首都圈 人口集中이 얼마나 急速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서울의 人口規模는 世界的으로 10번째 많은 市로 나타났고, 이러한 增加趨勢는 2000년에 1千3百만명 이상으로 世界 8位의 人口密集 都市로 나타날 것이다.³⁹⁾ 특

39) UN, *ibid.*, 1986; UNFPA, *Populi*, Vol.13, No.1, 1986.

Table 9. Projected Population of 5 Major Cities:1985~2000

5大都市의 推計人口

():%

| | 1985 | 1990 | 1995 | 2000 |
|---------------|-----------------------|-----------------------|-----------------------|-----------------------|
| Whole Country | 40,805,744 (100.0) | 42,792,512 (100.0) | 44,870,448 (100.0) | 46,827,776 (100.0) |
| Seoul | 9,715,848 (23.8) | 10,719,524 (25.0) | 11,697,726 (26.1) | 12,591,989 (26.9) |
| Pusan | 3,546,019 (8.7) | 3,808,534 (8.9) | 4,069,750 (9.1) | 4,312,838 (9.2) |
| Daegu | 2,048,448 (5.0) | 2,246,607 (5.3) | 2,440,952 (5.4) | 2,622,355 (5.6) |
| Incheon | 1,399,637 (3.4) | 1,656,070 (3.9) | 1,898,020 (4.2) | 2,121,298 (4.5) |
| Kwangju | 1,032,385 (2.5) | 1,198,190 (2.8) | 1,359,575 (3.0) | 1,493,806 (3.2) |
| Others | 23,063,407 (56.6) | 23,163,587 (54.1) | 23,404,425 (52.2) | 23,685,490 (50.6) |

Source: Economic Planning Board, Projected Population, 1988. 11, p.22.

히 서울의 人口密度는 每 km²當 15,921명으로 카이로(28,450명/km²), 봄베이(19,597명/km²) 다음으로 과밀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交通, 住宅, 公害 등 제 측면에서 많은 問題를 안게 되었다. 또한 釜山의 경우는 1km²當 8,089명이며, 仁川은 6,713명, 馬山이 6,162명 등으로 高密度 都市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表10 참조)

이와 관련하여 最近 약20年(1966~1985)동안의 우리나라 都市人口 集中度를 「로렌츠」曲線(Lorenz Curve), 「지니」集中比(Gini Concentration Ratio) 및 集中係數(Index of Concentration) 를 통하여 알아보고, 順位-規模分布의 法則(Rank-Size Rule)을 사용하여 都市化 程度를 파악코자 한다.

우선 「로렌츠」曲線은 1905年 所得分布에 있어서의 不均衡程度를 측정하기 위해 최초로 이용되었으나 「지니」集中比와 함께 人口의 集中狀態를 描寫하기 위해서 계속 이용되어 오고 있다. 「로렌츠」曲線은 45°對角線과 橫軸 및 從軸의 各級間(class interval)

Table 10. Population Density by 5 Major Cities and Industrial Cities by Year(based on 1985 area)

5大都市 및 일부工業都市 人口密度(1985年 面積 基準)

(단위 : 명 / km²)

| City (Area)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
| Whole country (99,143.32) | 252 | 294 | 311 | 350 | 378 | 408 |
| Seoul (605.43) | 4,039 | 6,596 | 8,974 | 11,380 | 13,816 | 15,921 |
| Pusan (434.52) | 2,678 | 3,282 | 4,240 | 5,643 | 7,272 | 8,089 |
| Daegu (455.06) | 1,487 | 1,857 | 2,337 | 2,880 | 3,527 | 4,461 |
| Incheon (206.60) | 1,943 | 2,545 | 3,069 | 3,872 | 5,246 | 6,713 |
| Kwangju (215.11) | 1,462 | 1,876 | 2,295 | 2,822 | 3,382 | 4,211 |
| Pohang (68.41) | 870 | 964 | 1,136 | 1,965 | 2,941 | 4,103 |
| Kumi (126.47) | - | - | - | - | 833 | 1,124 |
| Ulsan (180.32) | - | 626 | 871 | 1,401 | 2,320 | 3,111 |
| Masan (72.83) | 2,170 | 2,123 | 2,566 | 5,107 | 5,310 | 6,162 |
| Changwon (123.79) | - | - | - | - | 902 | 1,402 |

Note:Kumi, Ulsan, Changwon were set up as a city in 1978, 1972 and 1980, respectively

Source:Area;EPB, *Korea Statistical Yearbook*, No.33, 1986, pp. 20~29

Population;EPB,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s*, 1960~1985.

Table 11. Comparison of G.C.R and I.C by Year

年度別「지니」 集中比 및 集中係數

| Year | G.C.R ¹⁾ | G.C.R ²⁾ | I.C ³⁾ |
|------|---------------------|---------------------|-------------------|
| 1966 | 0.2980 | 0.3614 | 0.2452 |
| 1975 | 0.4090 | 0.4485 | 0.3320 |
| 1985 | 0.5531 | 0.5038 | 0.4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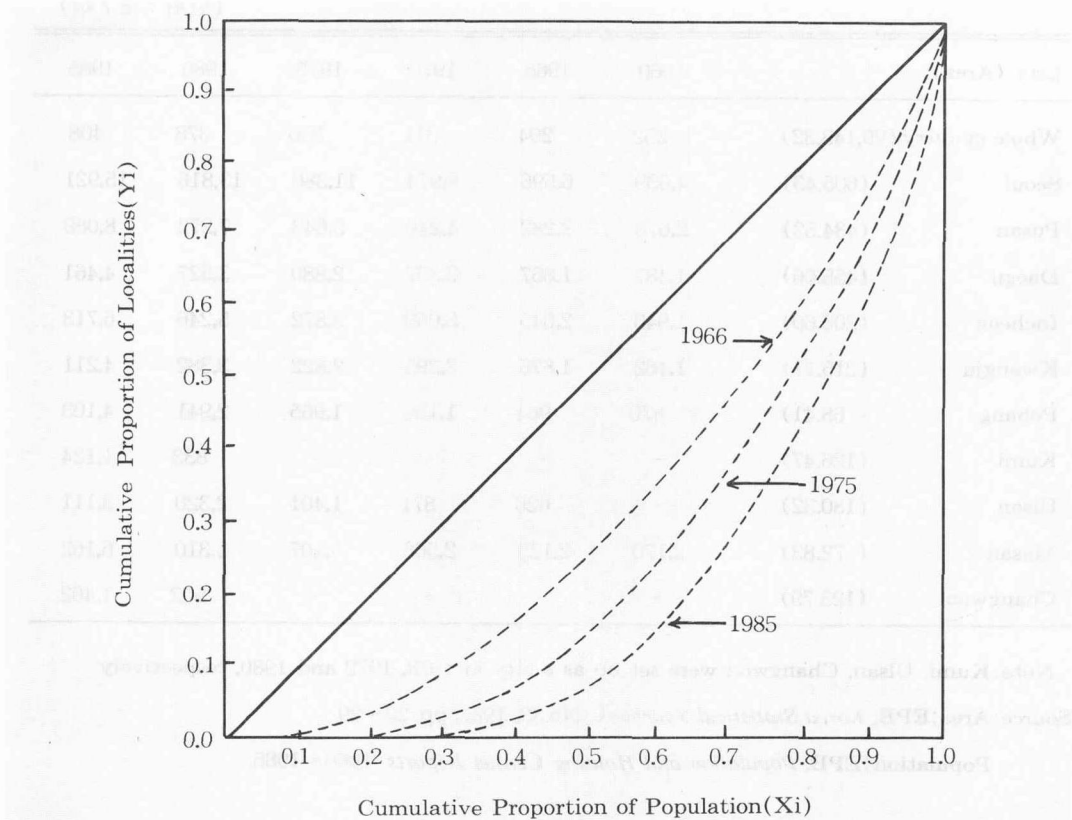
Note:1) Gini Concentration Ratio for Persons Living in Localities

2) 3) Gini Concentration Ratio & Index of Concentration for Departamentos arrayed by Population Density

Source:See Annex Table 1~6.

Figure 2. Lorenz Curve for Measuring Population Concentration in 1966, 1975, 1985

年度別「로렌츠」曲線



Source: See Annex Table 1~3

의 累積比率(橫軸; 累積人口比率, 縱軸; 累積地域比率 또는 累積面積比率)로서 이루어지는 曲線으로서 45°의 對角線은 가장 理想的인 均衡狀態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되며, 45°對角線과 「로렌츠」曲線이 이루는 面積을 不均衡面積(Concentration Area)이라 한다.⁴⁰⁾

또한 이 「로렌츠」曲線과 관련하여 설명되는 것이 「지니」集中比로서 이는 45°對角線下의 전체 면적에 대한 不均衡面積의 比로서 「지니」集中比가 크면 클수록 人口集中이 심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지니」集中比를 구하는 方法에는 2가지가 있는데

40) Henry S. Shryock,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Vol.1, U.S. Dept. of Commerce, 1976, pp. 178~180; 朴柱文, 李時伯, “韓國의 都市人口 集中度에 관한 研究”, 韓國人口學會誌, 第9卷, 第1號, 韓國人口學會, 1986. 7.

그 하나는 地域別 人口規模에 의한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人口密度에 의한 방법이다. 이 중에 人口規模에 의한 방법은 地域單位(locality) 設定方法 즉, 人口規模의 下限線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니」集中比가 달라져 人口密度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 國家에서의 時系列的인 比較에 있어서는 地域單位 設定方法을 고정하면 年度別 變化推移는 가능할 것으로 思料되어 本稿에서는 人口密度에 의한 方法과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集中係數의 年度別 比較를 하였는데 이는 45°對角線에서 「로렌츠」曲線까지의 最大垂直距離로서 人口比率와 面積比率間의 差異合計를 1/2한 값으로 나타낸다.

우선 <表 11>에서 볼 수 있듯이 人口規模에 의한 「지니」集中比는 1966년에 0.2980이었으나 1975년에는 0.4090, 그리고 1985년에는 0.5531이다. 人口密度에 의한 「지니」集中比는 1966년에 0.3614이던 것이 1975년에는 0.4485, 1985년에는 0.5038로 나타났으며, 集中係數의 경우에도 0.2452에서 0.4219로 모두 年度에 따라 계속적인 增加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方法에 따른 「지니」集中化 자체의 差異가 있다 할지라도 해가 거듭될 수록 우리나라 人口分布의 不均衡狀態가 점점 深化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順位-規模分布의 法則을 이용하여 都市化 程度를 알아 보았다. 이는 都市體系內에서 n번째 順位에 해당하는 都市의 規模는 首位都市規模의 1/n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順位-規模에 의해 결정된 實際人口⁴¹⁾와 그 實際人口를 각 順位로 나누어 얻은 豫想人口와의 差異가 +이나 -이냐에 따라 설명되는 것으로 産業化 및 都市化된 都市일수록 +의 값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附錄<表 8~10>에서 볼 수 있듯이 首位都市인 서울의 人口集中度가 높기 때문에 他 都市地域 人口와의 不均衡 程度는 더욱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에 이룰수록 인구의 都市集中은 都市가 지닌 教育, 雇傭 및 文化的 機會를 享有하기 위해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볼 때 이러한 吸引要因이 地域別로 配分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地域間 隔差도 보다 심화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41) 各 年度別 센서스 人口를 기준으로 함.

3. 人口構造의 轉換

人口의 量的 變動은 주로 出生, 死亡 및 移動 등의 現象에 의해 이루어지며, 結果的인 人口形態는 性別 年齡構造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年齡構造는 실제인구의 動態率이 고정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또 특정시점에서의 人口構成은 과거의 人口變動推移와 관련되며, 未來의 成長能力을 결정짓는 데도 도움을 준다.⁴²⁾⁴³⁾

이처럼 일반적인 인구의 性別 年齡構造는 封鎖人口에서 出生性比와 年齡別 死亡率 또는 총인구중 再生産年齡人口의 크기에 비례해서 분명해 진다. 그러나 人口構成 決定의 有機性은 表出的 形態에서 보다 매우 복잡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실제인구의 年齡構造가 과거의 狀況의 條件과 관련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확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인구의 불균형적 형태의 요인은 안정인구에서와 같이 정확한 공식을 도출하기 어렵지만 결정요인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는 다를 수 없다. 즉 이민이 없다면 출생 및 사망이 인구규모를 변동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며, 여기서 사망력은 어느 연령층에서 선별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형성된 人口構造에서 年齡別 出生, 死亡 또는 移動率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그 構成形態에 따라서 전체 人口動態率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기 때문에 인구구성 자체는 향후 人口變動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특히 韓國社會는 지난 半世紀間의 급속한 변화과정 속에서 人口變動이 심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人口構造의 변화도 컸음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1945年 日帝로부터의 解放을 전후한 과정이나 1950年 6.25動亂期는 주로 人口移動이 심했고, 그 이후는 出生 및 死亡率의 變化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체 人口構造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면 産業化 過程에서는 地域間 國內移動이 地域別 人口構造에 不均衡을 초래하였다.⁴⁴⁾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까지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年度別, 性別 年齡構造의 分布를 살펴보면 <表 12>에서 呈示된 바와 같다. 여기서 1925~1960년까지 人口構造의 典型은 「피라밋」형을 생각할 수 있고, 多産과 점진적인 少産趨勢에서 0~4歲 人口層의

42) 大友篤/嵯峨座晴夫, アヅア諸國の 人口構造と 勞動力, アヅア經濟研究所, 1979.

43) 黑田俊夫, 日本人口の 轉換構造, 古今書院, 昭和54, pp. 139~154.

44) 孔世權·金銀珠, “최근 地域別 人口構造의 特性”, 人口保健論集, 第8卷 第1號, 1988, pp. 3~31.

Table 12. Sex and Age Composition by Year

年度別 人口의 性 및 年齡分布

Unit: %

| Age | 1925 | 1944 | 1966 | 1985 | 2005 | 2023 |
|-------|--------|--------|--------|--------|--------|--------|
| All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0~4 | 16.14 | 17.03 | 15.37 | 9.16 | 6.79 | 5.54 |
| 5~9 | 12.22 | 14.18 | 15.82 | 9.69 | 7.08 | 5.72 |
| 10~14 | 11.34 | 11.98 | 12.31 | 11.07 | 7.41 | 5.93 |
| 15~19 | 9.87 | 9.36 | 9.29 | 10.68 | 7.66 | 6.12 |
| 20~24 | 7.73 | 7.44 | 7.88 | 10.50 | 7.99 | 6.40 |
| 25~29 | 7.74 | 6.65 | 7.70 | 10.07 | 7.77 | 6.63 |
| 30~34 | 6.62 | 6.24 | 6.72 | 7.71 | 8.78 | 6.93 |
| 35~39 | 5.99 | 5.40 | 5.33 | 6.39 | 8.58 | 7.11 |
| 40~44 | 4.99 | 4.53 | 4.62 | 5.41 | 8.30 | 7.35 |
| 45~49 | 4.30 | 4.32 | 3.83 | 5.17 | 7.85 | 7.28 |
| 50~54 | 3.54 | 3.59 | 3.25 | 4.19 | 5.92 | 8.16 |
| 55~59 | 3.09 | 2.96 | 2.70 | 3.14 | 4.63 | 7.32 |
| 60~64 | 2.52 | 2.42 | 1.89 | 2.49 | 3.83 | 7.00 |
| 65+ | 3.89 | 3.88 | 3.30 | 4.33 | 7.42 | 12.52 |

Source: Population Census and Projected Population.

肥大는 현저하다가 1966年 이후 감소추세로 이어진다. 특히 1955年 연령구조에서 20代 男性의 현저한 감소는 당시 6.25動亂으로 인한 人命損失과 관련되며, 이로 인한 0~4歲 人口의 감소도 현저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요 연령군별로 볼 때도 1925年 이후 0~14歲 인구는 총 人口중 39.7퍼센트에서 1966年 43.5퍼센트까지 증가하다가 1985년에는 29.9퍼센트로, 그리고 2023년에는 17.2퍼센트까지 감소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1955年の 人口는 특징적이며, 65歲 이상 인구는 1925~1985年間 3~4퍼센트 水準을 유지하다가 1985年 이후 급속한 증가를 나타내어 2023년에는 13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構造的 轉換에서 1966年까지 70~80以上을 유지하던 年少扶養比는 1966年 이후 下降趨勢로 轉換되며, 1995年은 1925~1966年の 扶養比의 1/2정도로 감소되며 2000

Table 13. Major Age Composition & Dependency Ratio:1925~2023

主要年齡 構成分布 및 扶養比:1925~2023

| | 1925 | 1935 | 1944 | 1955 | 1966 | 1975 | 1985 | 1995 | 2005 | 2015 | 2023 |
|---------------------------|------|------|------|------|------|------|------|------|------|------|------|
| Major Age Composition (%) | | | | | | | | | | | |
| 0~14 | 39.7 | 40.9 | 43.2 | 41.2 | 43.5 | 38.1 | 29.9 | 25.2 | 21.3 | 18.6 | 17.2 |
| 15~64 | 56.4 | 55.3 | 52.9 | 55.5 | 53.2 | 58.4 | 65.8 | 69.6 | 71.3 | 72.0 | 70.3 |
| 65+ | 3.9 | 3.8 | 3.9 | 3.3 | 3.3 | 3.5 | 4.3 | 5.2 | 7.4 | 9.4 | 12.5 |
| Dependency Ratio | | | | | | | | | | | |
| Total dependency ratio | 77.3 | 80.9 | 89.0 | 80.3 | 88.0 | 71.1 | 52.1 | 43.8 | 40.3 | 38.8 | 42.3 |
| Young dependency ratio | 70.4 | 74.0 | 81.6 | 74.4 | 81.8 | 65.2 | 45.5 | 36.3 | 29.9 | 25.8 | 24.5 |
| Old dependency ratio | 6.9 | 6.8 | 7.3 | 6.0 | 6.2 | 6.0 | 6.6 | 7.5 | 10.4 | 13.1 | 17.8 |

年代 초기는 1/3정도로 감소될 전망이다. 老人扶養比는 1985年 이전까지 6~7水準을 유지했으나 2000年代 初期부터는 倍增함으로써 이제 老齡社會로의 轉換이 불가피한 것이다.(表 13참조)

年齡構造에서 中位年齡(Median Age)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이는 社會的 中心年齡이 어떤 年齡層에 集約되느냐는 점에서 社會·經濟·政治·文化 등에서 관심을 갖게된다. 이러한 中位年齡은 1925년에 20.3歲를 나타냈으나 多産에 따른 相對的 影響으로 1966년까지는 18.5歲로 점진적인 下降이 있었다. 그러나 1966年 이후부터는 出産調節의 影響으로 中位年齡은 上昇趨勢를 나타내면서 2000年 初期에는 40歲까지 接近할 전망이다.(表 14참조) 世界的으로 1985年 현재 中位年齡은 23.5歲를 나타내며, 先進國은 32.5歲인 반면 開發途上國은 21.0歲로 12歲의 차이를 나타낸다.⁴⁵⁾ 이러한 中位年齡은 지역별로 볼때도 아프리카에서 17.3歲, 南美가 20.8歲로 비교적 낮은 반면 西歐는 33.9歲, 北美는 31.3歲로 다양하다. 韓國人口의 中位年齡은 1985年 24.5歲로 東아시아의 24.7歲와 비견된다. 그러나 2025년에 東아시아의 中位年齡이 38.2歲로 증가할 전망에 비추어 보면 韓國人口는 39.7歲를 유지할 것으로 보아 韓國人口의 構造的 轉換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짐으로써 당시 先進國의 38.6歲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5) United Nations, *ibid.*, 1986, p. 31.

이와 관련된 老化指數(Aging Index)⁴⁶⁾는 1925~1975年間 약9水準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出生力의 低下와 平均壽命의 延長은 1985年 老化指數를 14.5로 상승시켰고, 2005년에는 34.9로, 그리고 2023년에는 72.8로 上昇시킴으로써 完전한 老齡社會로 進入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73정도의 老化指數는 日本의 1965年 75水準과 比견되며, 1975년에 日本은 95水準을 나타내고 있다.(表 14참조)

이러한 相對的 또는 絶對指數들의 變化는 死亡力의 減少와 平均壽命의 延長에서 보다는 出生力의 감소에서 민감한 影響을 받게된다. 즉 死亡力의 감소와 平均壽命의 延長은 嬰兒死亡率의 높은 비중으로 短期間內에 人口構造에 影響을 줄 수 없지만, 뒤따르는 出生力 低下는 年少人口層의 비중을 줄이면서 相對的 老化比를 높게 된다.⁴⁷⁾⁴⁸⁾ 이러한 觀點에서 母兒比(Child-Woman Ratio)의 변동추이를 보면 1966年 이전까지 88~76水準을 유지했으나 1985년에는 동 母兒比가 33.4로 半減되었고 이는 앞으로

Table 14. Median Age, Aging Index and Child-Woman Ratio:1925~2023

中位年齡, 老化指數 및 母兒比 : 1925~2023

| Year | Median Age | Aging Index | Child-Woman Ratio |
|------|------------|-------------|-------------------|
| 1925 | 20.3 | 9.8 | 70.6 |
| 1935 | 19.8 | 9.2 | 72.6 |
| 1944 | 18.6 | 9.0 | 76.5 |
| 1955 | 18.9 | 8.1 | 65.5 |
| 1966 | 18.5 | 7.6 | 68.1 |
| 1975 | 20.0 | 9.1 | 49.1 |
| 1985 | 24.5 | 14.5 | 33.4 |
| 1995 | 28.5 | 20.7 | 29.1 |
| 2005 | 33.0 | 34.9 | 24.6 |
| 2015 | 37.1 | 50.8 | 23.9 |
| 2023 | 39.7 | 72.8 | 24.2 |

46) 여기서 老化指數(Aging Index)는 $P_{65+}/P_{0-14} \times 100$ 으로 한 것임.

47) Alfred J. Lotka, *Theorie Analytique des Associations Biologiques*, Deuxieme Partie;Analyse Demographique avec Application Particuliere a l'espèce Humaine, Paris, Hermann, 1939.

48) Alvaro Lopez, *Problems in Stable Population Theory*, Office of Population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1961.

2000年代初에 24水準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점과 脈略을 같이한다.

그러면 1985年 人口의 性別 年齡構造를 基準으로 했을때 과거의 人口構造는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러한 점은 年齡指數(Age-Index)와 相對的 差異指數(Index of Relative Difference;IRD)⁴⁹⁾⁵⁰⁾로서 살펴봄이 편리하다. 먼저 1985年을 기준으로 했을때 과거 또는 미래의 年齡指數는 <表 15> 및 <圖 3>과 같이 나타난다. 즉 1985年에 0~4歲의 人口分布를 100으로 하였을때 1966年은 동 年齡群이 168의 相對指數를 나타내며, 1944年은 186으로 과거의 추세에서 多産現象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점은 5~14歲群에서 相對的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통사회에 이질수록 幼年人口의 비중이 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5年 이후부터는 出産調節의 결과로 幼

Table 15. Age Indices by Year:1925~2023(Based on 1985)

年度別 年齡指數 : 192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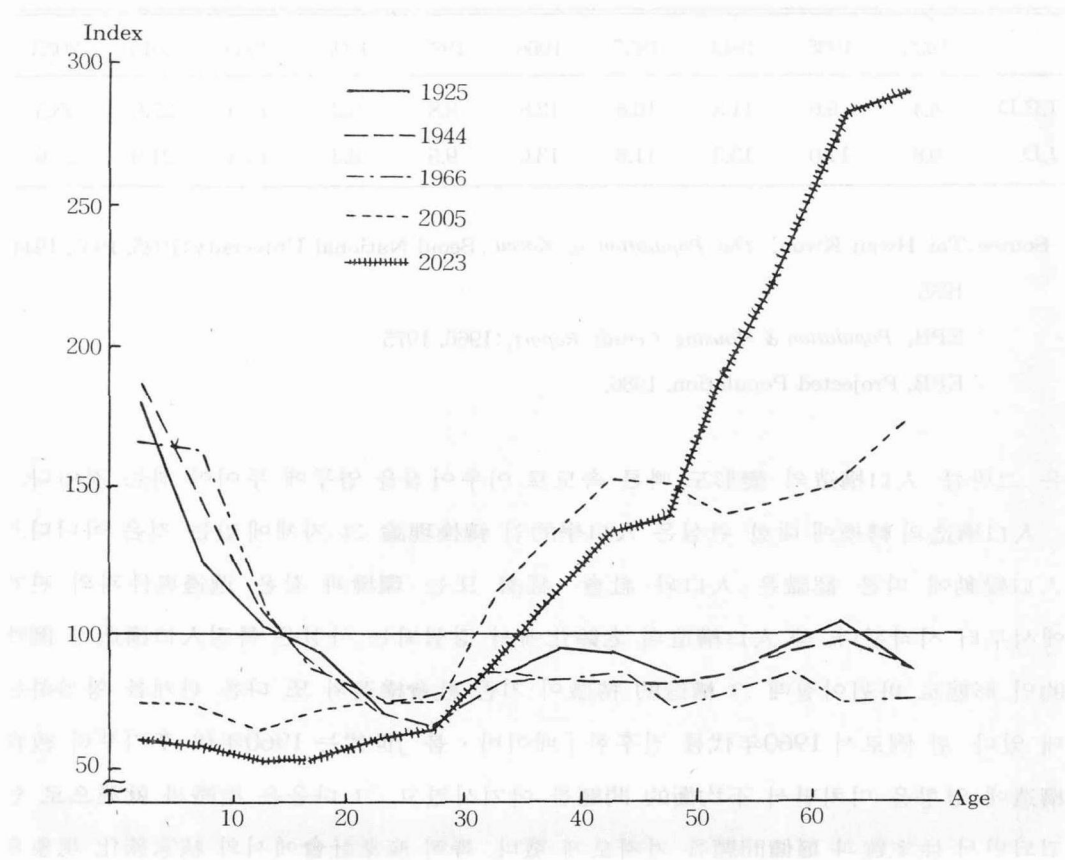
| Age | 1925 | 1935 | 1944 | 1955 | 1966 | 1975 | 1995 | 2005 | 2015 | 2023 |
|-------|--------|--------|--------|--------|--------|--------|--------|--------|--------|--------|
| 0~4 | 176.20 | 180.46 | 185.92 | 171.40 | 167.79 | 133.08 | 88.65 | 74.13 | 65.39 | 60.48 |
| 5~9 | 126.11 | 134.16 | 146.34 | 137.67 | 163.26 | 132.51 | 86.27 | 73.07 | 63.57 | 59.03 |
| 10~14 | 102.44 | 102.98 | 108.22 | 110.12 | 111.20 | 117.89 | 79.04 | 66.94 | 57.90 | 53.57 |
| 15~19 | 92.42 | 88.58 | 87.64 | 104.31 | 86.99 | 111.99 | 80.06 | 71.72 | 62.83 | 57.30 |
| 20~24 | 73.62 | 81.33 | 70.86 | 77.71 | 75.05 | 85.81 | 91.90 | 76.10 | 66.67 | 60.95 |
| 25~29 | 76.86 | 72.19 | 66.04 | 66.43 | 76.46 | 71.80 | 93.45 | 77.16 | 71.50 | 65.84 |
| 30~34 | 85.86 | 75.10 | 80.93 | 83.79 | 87.16 | 83.14 | 118.29 | 113.88 | 97.54 | 89.88 |
| 35~39 | 93.74 | 92.18 | 84.51 | 84.98 | 83.41 | 98.75 | 135.99 | 134.27 | 114.55 | 111.27 |
| 40~44 | 92.24 | 92.61 | 83.73 | 90.57 | 85.40 | 95.93 | 123.11 | 153.42 | 152.87 | 135.86 |
| 45~49 | 83.17 | 86.27 | 83.56 | 85.30 | 74.08 | 77.95 | 103.48 | 151.84 | 155.51 | 140.81 |
| 50~54 | 84.49 | 85.68 | 85.68 | 75.42 | 77.57 | 82.34 | 111.22 | 141.29 | 183.77 | 194.75 |
| 55~59 | 98.41 | 95.54 | 94.27 | 91.08 | 85.99 | 86.31 | 135.35 | 147.45 | 227.07 | 233.12 |
| 60~64 | 102.20 | 91.16 | 97.19 | 89.56 | 75.90 | 85.54 | 129.32 | 153.82 | 206.02 | 281.12 |
| 65+ | 89.84 | 87.30 | 89.61 | 76.67 | 76.21 | 80.37 | 120.32 | 171.36 | 217.78 | 289.15 |

49) 여기서 $IRD = \frac{1}{2} \sum \left| \frac{r_{2a}}{r_{1a}} \times 100 - 100 \right|$ 로 계산되며 r_{1a} 는 기초인구의 老齡分布, r_{2a} 는 비교인구의 年齡分布이며 n 은 연령구간수임.

50) Henry S. Shryock, *ibid.*, 1976.

Figure 3. Trends of Age Indices(Total Population):1925~2023

年齡指數의 推移：1925~2023



年人口의 比가 감소되면서 老齡層의 相對指數가 급증됨을 나타낸다. 즉 65歲이상 年齡群의 경우 相對指數는 1985年이 100인데 비해 2005年은 171, 2023年은 289로 거의 3倍의 증가를 엿볼 수 있다.

1985年 人口構造를 기준으로 이를 종합해 본 전체 人口의 相對的 差異指數(Index of Relative Difference:IRD) 및 不一致指數(Index of Dissimilarity:ID)는 <表 16>과 같이 1985年 이전 年代 일수록 相對的 差異指數나 不一致指數가 낮고 年代가 멀수록 높은 점은 韓國人口構造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樣相이 바뀌어지는 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라 하겠다. 즉 傳統社會에서 多産多死現象이 少産少死의 類型으로 이행하면서 幼年層에서의 높은 비중이 壯年 및 老齡層에서 높은 비중으로 남게 되는 점이 그것이다. 이 러한 狀況에서 이제까지 出産力 및 死亡力이 짧은 기간내에 급속히 저하되어 왔던 점⁵¹⁾

Table 16. Index of Relative Difference & Index of Dissimilarity Based on 1985:1925~2023

1985年을 基準으로 한 相對的 差異指數 및 不一致 指數 : 1925~2023

| | 1925 | 1935 | 1944 | 1955 | 1966 | 1975 | 1995 | 2005 | 2015 | 2023 |
|--------|------|------|------|------|------|------|------|------|------|------|
| I.R.D. | 8.4 | 9.6 | 11.3 | 10.8 | 12.8 | 8.8 | 9.2 | 18.9 | 27.6 | 33.5 |
| I.D. | 9.8 | 11.0 | 13.3 | 11.8 | 13.6 | 9.5 | 8.3 | 16.5 | 21.9 | 25.6 |

Source: Tai Hwan Kwon,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1925, 1935, 1944, 1955
 EPB, *Population & Housing Census Report*, :1966, 1975
 EPB, *Projected Population*, 1986.

은 그만큼 人口構造의 變形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人口構造의 轉換에 대한 관심은 人口學的인 轉換理論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⁵²⁾ 人口變動에 따른 認識은 人口와 社會·經濟 또는 環境과 같은 週邊與件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人口構造의 老齡化에서 경험되는 사실은 특정 人口構造가 例外的인 形態로 바뀌어질때 그 構造的 特徵이 기존 社會構造와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 한 例로서 1960年代를 전후한 「베이비·붐」世代는 1960年代 후기부터 教育構造에 영향을 미치면서 不均衡的 問題를 야기시켰고, 그 다음은 結婚과 就業으로 연결되면서 住宅難과 雇傭問題를 가져오게 했다. 특히 産業社會에서의 核家族化 現象은 社會構造와 有機性을 지니면서 家族問題로 연결되고, 또 人口의 老齡化에서 老人問題는 이에 따른 對備策이 마련되지 못할때 보다 심각한 社會問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人口轉換에 대한 認識의 차원이 이제까지 人口增加라는 近視的 當面性에만 固着되어 왔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轉換의 의미는 보다 광범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볼때 人口와 社會·經濟 또는 環境條件과의 不均衡은 그 規模와 아울러 構造的 特性 및 關係 등에서 장기적인 차원의 고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51) 經濟企劃院, 最近 人口變動 現況 및 新人口統計, 프린트物, 1988. 11

52) 館稔, 型式人口學-人口現象의 分析技法-, 古今書院, 1960; A. H. Hawley, "Population Composition", *The Study of Population* (ed. by Hausen and Duncan), 1959.

그러면 人口의 構造的 轉換에 따라서 性比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일반적으로 出生時 性比는 女子가 100일 경우 男子는 105를 전후해서 거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 물론 出生時 性比는 人種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그것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며 胎兒死亡 또는 嬰兒死亡率의 차이에 의한 점이 크다. 특히 胎兒期나 嬰幼兒期の 死亡原因은 주로 生物學的 要因에 의해서 좌우되며, 이러한 周産期間에서의 生存確率은 女子가 더 높아 男子의 死亡確率은 女子보다도 12퍼센트나 더 높다고 한다. 또 新生兒死亡率은 女子에서 보다도 男子에서 130퍼센트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미국사회에서 입증되고 있다.^{53~57)}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周産期死亡率의 低下는 이제까지의 性比를 높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단적인 실례는 최근에 이를수록 0~4歲의 性比가 높아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韓國人口의 전체 性比는 101水準에서 큰 변동이 없으나 年齡別 性比 變化는 <表 17> 및 <圖 4>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여기서 1944年과 1955年의 2次大戰期 및 6.25動亂期에서 젊은 男性死亡力이 높았던 경우와 이러한 年齡코호트가 移行되면서 나타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50歲以前에서 性比는 매우 安定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50歲以前에 女性數보다 男性數가 비교적 많은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50歲 이후 性別 差異死亡力은 男子가 높기 때문에 현저한 저하가 나타나며, 이는 앞으로의 推計人口에서도 平均壽命의 연장에 따라서 安定的 性比를 이루는 연령이 높아지지만 高齡일수록 性比의 저하는 여전하다.

특히 65歲이상의 老齡層에서의 性比는 최근에 이를수록 현저한 性別 差異死亡力에 의해 감소되므로 1925年 84가 1995년에는 54水準으로 저하될 것이며 이들 연령군에서 54퍼센트가 여성이던 것이 65퍼센트로 증가하여 老人問題에서는 女性老人問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즉 女性老人의 問題란 核家族化 性向에서 男便을 잃고, 충분한

53) Leon E. Clark, *Mortality American Style: A Tale of Two States*,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1977.

54) Institute of Medicine, *Infant Death: An Analysis of Maternal Risk and Health Car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973.

55)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Health; United States*, DHEW Publication 76~123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56) John R. Paul, *Clinical Epidem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57) Fredric D. Wolinsky, *The Sociology of Health*, Little Brown & Company, 1980.

Table 17. Sex Ratio by Year:1925~2023

年度別 性比：1925~2023

| Age | 1925 | 1935 | 1944 | 1955 | 1966 | 1975 | 1985 | 1995 | 2005 | 2015 | 2023 |
|-------|-------|-------|-------|-------|-------|-------|-------|-------|-------|-------|-------|
| All | 104.7 | 103.1 | 99.4 | 100.0 | 101.4 | 101.2 | 100.2 | 101.6 | 101.4 | 101.4 | 101.3 |
| 0~4 | 103.4 | 103.1 | 101.9 | 106.7 | 107.2 | 107.4 | 108.0 | 108.1 | 106.9 | 106.9 | 106.9 |
| 5~9 | 106.9 | 105.0 | 103.9 | 109.1 | 107.6 | 107.0 | 107.1 | 109.3 | 107.8 | 107.4 | 107.4 |
| 10~14 | 107.4 | 105.9 | 105.7 | 109.8 | 107.2 | 107.8 | 106.7 | 109.4 | 109.0 | 107.7 | 107.7 |
| 15~19 | 105.6 | 105.8 | 99.9 | 110.5 | 106.9 | 105.0 | 106.6 | 106.9 | 109.8 | 108.4 | 108.0 |
| 20~24 | 104.0 | 102.4 | 90.8 | 85.4 | 109.9 | 106.6 | 106.1 | 106.5 | 109.7 | 109.3 | 108.2 |
| 25~29 | 105.1 | 101.2 | 94.7 | 79.0 | 98.9 | 102.9 | 99.2 | 106.0 | 107.0 | 109.9 | 108.8 |
| 30~34 | 108.1 | 103.0 | 96.1 | 95.6 | 99.2 | 103.5 | 104.2 | 104.1 | 106.6 | 109.8 | 109.8 |
| 35~39 | 109.0 | 104.7 | 99.1 | 100.4 | 89.7 | 103.1 | 105.4 | 102.3 | 106.1 | 107.1 | 110.0 |
| 40~44 | 110.3 | 106.0 | 102.1 | 101.2 | 95.9 | 96.8 | 102.8 | 109.3 | 104.0 | 106.5 | 108.7 |
| 45~49 | 108.5 | 105.4 | 104.2 | 110.0 | 100.6 | 86.8 | 99.7 | 106.4 | 101.5 | 105.8 | 106.9 |
| 50~54 | 106.5 | 105.3 | 100.1 | 98.6 | 96.6 | 92.9 | 91.4 | 102.3 | 107.1 | 103.2 | 105.2 |
| 55~59 | 98.5 | 100.6 | 97.3 | 92.5 | 91.3 | 91.7 | 79.3 | 95.7 | 101.5 | 99.2 | 99.2 |
| 60~64 | 93.1 | 97.3 | 93.3 | 82.6 | 81.9 | 83.0 | 77.7 | 82.0 | 92.2 | 100.2 | 100.2 |
| 65+ | 83.6 | 83.0 | 81.9 | 72.9 | 64.9 | 61.3 | 59.4 | 54.3 | 59.0 | 64.2 | 64.2 |

經濟力を 갖지 못한 세대의 노인들이 集約된다는 점에서 絶對扶養이 요구되는 점이다.

性別 年齡別 人口構造의 변화는 時系列的 人口動態率의 변화에서 뿐만 아니라 地域間 人口移動에 의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즉 出産力은 都市地域에서 보다는 農村地域에서 높은 水準을 유지해 왔던 점에서 0~14歲 人口比는 農村이 높고 産業化過程에서 젊은層의 都市集中은 相對的으로 農村의 老人比를 높여 왔다. 따라서 1985年の 경우 65歲이상 人口率은 都市가 3.0퍼센트인데 비해 農村은 6.8퍼센트로 두배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점은 老人扶養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1985年 農村의 扶養比가 59.4인데 비해 都市는 48.5로 나타나 農村이 22퍼센트나 높다(表 18참조). 또 이러한 地域間 人口構造의 격차는 최근 20年間 계속 벌어져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내부적 人口構造의 격차로 인한 地域間 勞動力 問題는 재고되어야 하겠다.

年齡構造에서 地域間 中位年齡은 1985年 都市가 24.1歲인데 비해 農村은 25.3歲로

Figure 4. Difference of Sex Ratio by Year

年度別 性比의 差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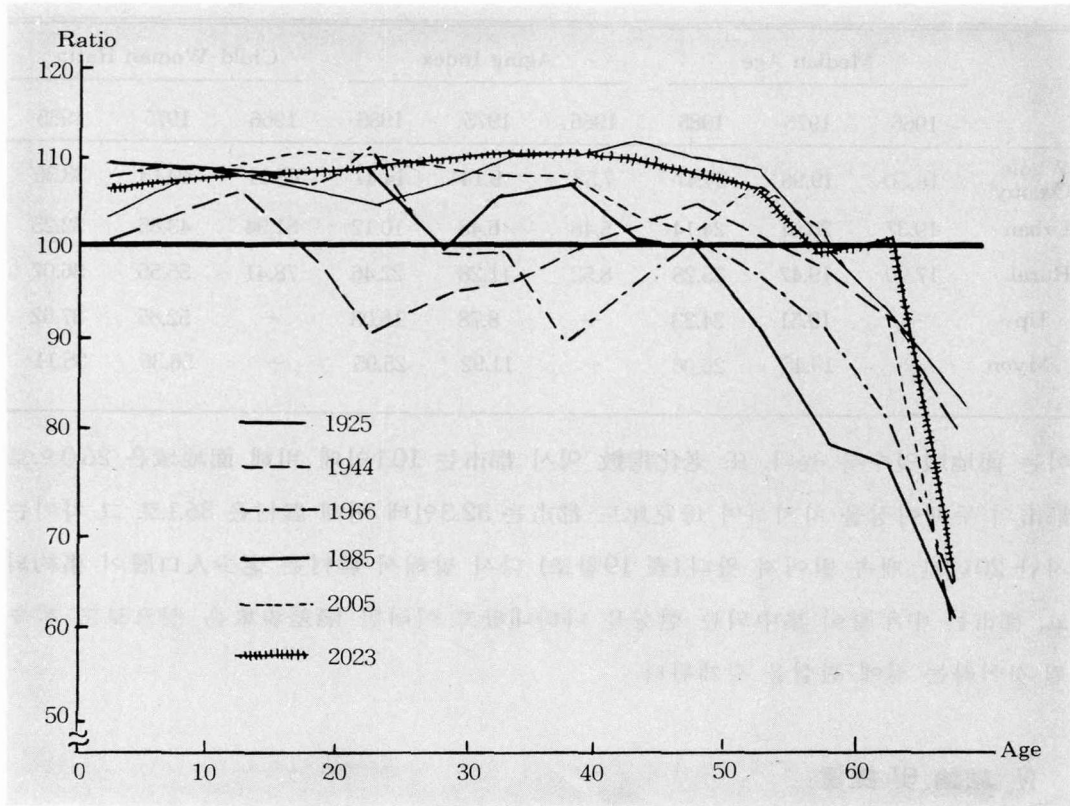


Table 18. Percent Distribution of the Major Age Composition and Dependency Ratios by Region

主要年齡 構成分布 및 扶養比의 地域別 比較 : 1966~1985

| | Whole Country | | | Urban | | | Rural | | |
|---------------------------|---------------|-------|-------|-------|-------|-------|-------|-------|-------|
| | 1966 | 1975 | 1985 | 1966 | 1975 | 1985 | 1966 | 1975 | 1985 |
| Major Age Composition (%) | | | | | | | | | |
| 0~14 | 43.50 | 38.09 | 29.92 | 40.10 | 35.19 | 29.65 | 45.20 | 40.81 | 30.42 |
| 15~64 | 53.21 | 58.43 | 65.75 | 57.60 | 62.54 | 67.34 | 50.80 | 54.58 | 62.73 |
| 65+ | 3.30 | 3.48 | 4.33 | 2.20 | 2.28 | 3.01 | 3.90 | 4.60 | 6.84 |
| Dependency Ratio | | | | | | | | | |
| Total dependency ratio | 87.95 | 71.14 | 52.10 | 73.53 | 59.91 | 48.50 | 96.18 | 83.21 | 59.39 |
| Young dependency ratio | 81.76 | 65.18 | 45.51 | 69.71 | 56.27 | 44.04 | 88.63 | 74.77 | 48.50 |
| Old dependency ratio | 6.20 | 5.95 | 6.58 | 3.82 | 3.64 | 4.46 | 7.55 | 8.44 | 10.89 |

Table 19. Comparison of Median Age, Aging Index, Child-Woman Ratio by Year and Region

中位年齡, 老化指數 및 母兒比의 地域別 比較

| | Median Age | | | Aging Index | | | Child-Woman Ratio | | |
|---------------|------------|-------|-------|-------------|-------|-------|-------------------|-------|-------|
| | 1966 | 1975 | 1985 | 1966 | 1975 | 1985 | 1966 | 1975 | 1985 |
| Whole Country | 18.50 | 19.98 | 24.47 | 7.58 | 9.14 | 14.47 | 68.11 | 49.13 | 33.36 |
| Urban | 19.37 | 20.51 | 24.14 | 5.48 | 6.48 | 10.12 | 51.34 | 43.85 | 32.25 |
| Rural | 17.90 | 19.47 | 25.28 | 8.52 | 11.28 | 22.46 | 78.41 | 55.56 | 36.07 |
| Up | — | 19.51 | 24.23 | — | 8.78 | 16.03 | — | 52.85 | 37.62 |
| Myon | — | 19.45 | 26.06 | — | 11.92 | 25.95 | — | 56.36 | 35.11 |

이는 面地域일수록 높다. 또 老化指數 역시 都市는 10.1인데 비해 面地域은 26.0으로 都市의 두배이상을 차지하며 母兒比도 都市는 32.3인데 비해 農村은 36.1로 그 차이는 지난 20년간 계속 벌어져 왔다.(表 19참조) 다시 말해서 農村은 老少人口層이 集約되고, 都市는 中年層이 集中되는 현상을 나타내왔고 이러한 隔差現象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갖게된다.

IV. 結論 및 提言

이제까지의 人口資料를 綜合的으로 檢討해 볼때 今世紀에서 韓國人口는 급속한 轉換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1900年代를 전후했던 胎動期를 거치면서 1910~1945年間的 前近代期에서부터 人口變動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世紀 이전까지만 해도 閉鎖社會에서 微動人口는 日帝期에 점진적인 死亡力低下로 인한 增加現象이 나타났고, 海外移出도 늘어나게 되었다. 또 1945年 日帝로부터의 解放은 海外同胞의 歸還과 國土分斷에 따른 人口의 兩分, 그리고 1950~1953年間的 6.25動亂은 전쟁사망과 남북한 人口의 再交流 등에서 1945~1955年間은 人口의 일대 攪亂期로 지칭할 수 있다.

6.25動亂후 韓國人口는 西歐의 保健醫療技術導入으로 급속한 死亡力低下가 있었고 動亂期에서 結婚 및 出產遲滯現象의 解消는 高出産率을 유지하는 가운데 급속한 人口增加現象을 나타나게 했다. 이러한 「베이비·붐」(baby-boom)期는 1955~1965年間 계속 되었고, 동 期間에 年平均 人口增加率은 약 3퍼센트에 달하여 이를 人口의 轉換

期로 칭할 수 있다.

1960年代를 전후한 「베이비·붐」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出産調節政策은 人口轉換에서 또 다른 意味를 지닌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은 낮아지는 死亡力水準에 出産水準을 접근시켜서 人口增加에 따른 問題를 완화시켜 본다는 점이 초점이었던 것이다. 이 出産調節政策을 뒷받침 했던 사업은 家族計劃事業으로 지칭되고, 家族計劃事業은 子女觀을 변화시키면서 원치 않는 妊娠을 避妊方法으로 豫防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던 家族計劃事業은 단계적으로 피임실천율을 높이면서 出産力低下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이는 1960년에 약 6水準을 유지했던 婦人當 合計出産率을 1970년에 4.3으로, 또 1980년에는 2.8로 감소시키면서 1985년에는 2.1의 人口代替水準까지 저하시켰고, 이러한 加速的인 出生力저하 현상은 1988년에 婦人當 合計出産率을 1.7로 低下시킴으로써 人口增加問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1.7水準의 婦人當 合計出産率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00년에는 총 인구가 4千7百萬명 수준에서 0.97퍼센트의 인구증가율을 유지하므로 人口의 近代化期를 맞게 될 것이고, 2020年頃에는 총 인구가 5千2百萬명 水準에서 人口增加는 停止狀態를 이룸으로써 近代化 定着期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는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家族計劃事業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1.7의 婦人當 合計出産率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본 研究의 관심은 韓國人口가 1/4世紀만에 轉換期를 보내면서 이제 近代化期에 접어들게 되었고, 또 앞으로 1/4世紀後에는 다시 近代化定着期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급속한 人口轉換의 意味는 人口問題에 대한 認識의 次元이 이제까지 增加라는 점에만 固着되어 왔던 偏見을 넘어서서 人口構造나 分布의 轉換과 함께 包括的인 領域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급속한 人口의 變化는 그마만큼 構造的 轉換에 영향을 주면서 이는 社會·經濟構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老人問題로 귀착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人口轉換은 人口자체의 機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社會·經濟構造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때 社會·經濟構造와 人口轉換構造는 有機的으로 調整 또는 對應策이 마련되어야만 人口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韓國은 급속한 社會·政治的 變化와 産業化過程에서 人口增加率보다도 높은 都市人口增加를 나타내어 1960년에 약 1/5정도가 都市人口였던 것이 최근에는 2/3가 都市人口로 구성되었고, 또 앞으로 2000年代에는 先進國 보다도 높은 4/5가 都市人口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都市開發과 都市問題, 또는 相對的인 農村問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都市化의 性向은 大都市 人口集中이라는 점에 특징을 나타내고, 首都圈人口集中이 보다 현저하다는 점에서 都市開發은 人口集中에 몰려서 궁여지책으로 이루어질 수만은 없고 都市機能과 定住體系를 감안한 開發計劃이 要求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近代化過程에서 人口轉換은 특정 地域으로의 密集과 老齡問題로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1960年代를 전후했던 「베이비·붐」世代가 移行되면서 教育和 雇傭, 結婚과 住宅, 그리고 家族問題로 이어지고, 2000年代에는 老人問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된다. 즉 2000年代의 韓國社會는 “高齡·都市化” 社會라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여기서 人口의 都市集中은 住宅, 交通, 公害問題 뿐만 아니라 社會構造의 不均衡과 社會病理問題로 직결되며, 老人問題는 扶養問題 뿐만 아니라 家族構造와 함께 社會·經濟構造, 또는 保健·醫療構造와 社會價値體系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韓國人口의 轉換特性을 概觀하면서 다음 몇가지 政策的 考慮事項을 附言코져 한다.

먼저 급속한 人口轉換에서 관심을 갖게되는 점은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家族計劃事業을 어떤 方向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느냐는 점이다. 특히 인구증가면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점은 모든 人口展望이 그러하듯 기존의 狀況의 條件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家族計劃事業을 계속하여 추진해야만 停止人口를 이룰 수 있고, 停止人口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形態로건 出産調節事業이 存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기존 家族計劃事業이 안고있는 問題는 量的 避妊普及에만 力點을 두어왔기 때문에 質的管理에는 소홀한 나머지 避妊의 副作用이나 人工妊娠中絶의 盛行 등이 앞으로 改善을 要하는 점이 된다. 다음은 이제까지의 家族計劃事業은 적은 子女數를 둠으로써 幸福한 家庭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과연 現代家庭이 적은 子女數만으로 幸福해 졌는가를 되돌아켜보게

된다. 오늘날의 家庭은 적은 數의 子女로서도 養育과 教育에 어려움을 겪고, 또 夫婦 및 老父母들과의 渴慕이 家族解體의 問題로까지 나타나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家族計劃事業은 “家族計劃”이라는 用語의 概念에서 부터 認識을 바꾸어야 하겠고, 이는 家族計劃이 出産調節이라는 국한된 의미에서 보다 家庭生活計劃을 포괄하는 차원으로의 轉換이 要求되는 것이다. 즉, 家庭生活計劃이란 結婚으로 이어지는 家族形成段階에서 부터 出産과 子女의 養育 및 教育, 그리고 夫婦生活과 老後生活로 이어지는 家族成長 (family growth) 過程에서 合理的인 計劃과 準備가 要求되고, 또 家族員間에는 특별한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共同體的 結束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삶의 價値도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家族計劃事業은 避妊서비스라는 單線的인 차원에서 家族健康 (family health)과 家族 福祉 (family welfare)라는 차원으로 目標轉換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轉換에 따른 理想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事業들이 현실적 條件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開發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停止人口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기존 出産調節의 質的管理와 避妊서비스 體系를 整備하여야 하고, 일선 要員의 再訓練도 要求된다. 또 人工妊娠中絶의 盛行은 이를 避妊으로 誘導하기 위한 方案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靑少年 및 婚前對象에 대한 性教育은 社會問題의 해결과 關聯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대책이 기대되는 것이다.

둘째는, 家族單位를 기초로 하는한 家族保健 (family health) 事業은 疾病의 慢性化 趨勢나 家族共同體가 포용하는 保健學的 有意性에서 바람직한 事業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考慮될 수 있는 가족보건 사업은 기존 母子保健事業의 形態를 발전 시킴과 더불어 食生活改善과 營養管理, 家庭衛生과 家庭環境改善, 成人病 및 老人保健 등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形態가 그러한 것이다.

셋째는, 家族福祉 (family welfare)와 關聯된 計劃 및 서비스가 보다 중요시 된다. 특히 核家族化 性向에서 子女의 養育과 教育에 따른 問題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夫婦가 모두 獨立된 職場에 취업을 했을 경우 보다 더 중요시 된다. 따라서 家庭計劃과 關聯된 서비스 프로그램은 기존의 固着된 觀念을 넘어서 子女의 養育과 教育, 夫婦間의 問題와 役割分擔, 老後問題와 老人扶養 등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家庭福祉서비스 프로그램이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人口轉換과 관련해서 國家次元의 綜合的인 人口政策이 樹立되어야 하겠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 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급속한 人口轉換은 人口構造의 變형과 人口의 都市集中에서 관심을 갖게되며, 이 두가지 점은 유우엔(UN)의 권고사항으로 人口政策과 國家開發政策과의 連繫推進을 강조하는 점이다. 여기서 都市人口集中은 國土開發의 차원에서 定住體系를 정비하고, 國土의 効率的 活用과 生活條件을 改善해 간다는 점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人口集中에 밀려서 地域開發을 서둘러야 하는 近視的인 차원은 되돌릴 수 없는 局面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綜合的 研究와 政策開發이 時急時된다고 본다.

또 近代化過程에서 人口의 老齡化는 필연적인 現象이며, 이는 人口構造의 轉換이 社會·經濟 및 福祉需要와 連繫性을 지닌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된다. 즉, 經濟構造의 變경에 따른 人力開發 및 効率的 活用은 불가피한 점이며, 雇傭과 住宅問題는 1960年代에 「베이비·붐」世代의 轉換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世代가 2000年代에 老人問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老人問題의 複合性을 고려해 다각적인 對應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産業社會에서 女性人力의 社會的 進出이 보편적 추세임을 감안할때 女性에 대한 就業條件의 改善과, 家族生活과 직결되는 문제를 위해서 家庭福祉問題는 認識의 차원을 넘어선 軟性政策 (soft policy) 이 요구되는 것이다.

Appendix 1. Computation of Gini Concentration Ratio for Persons Living in Localities:1966

1966年 人口規模別「지리」集中比

| Size of Locality | Number of Localities | Population | Proportion | | Cumulative Proportion | | XiYi+1 | Xi+1Yi |
|---------------------|----------------------|------------|------------|------------|-----------------------|-----------------|--------|--------|
| | | | Localities | Population | Localities (Yi) | Population (Xi) | | |
| All Localities | 171 | 29,159,640 | 1.0000 | 1.0000 | — | — | 3.0446 | 2.7446 |
| 3,000,000 and over | 1 | 3,793,280 | 0.0058 | 0.1301 | 0.0058 | 0.1301 | 0.0015 | 0.0010 |
| 2,000,000~2,999,999 | — | — | — | — | — | — | — | — |
| 1,000,000~1,999,999 | 1 | 1,426,019 | 0.0058 | 0.0489 | 0.0116 | 0.1790 | 0.0042 | 0.0026 |
| 500,000 ~ 999,999 | 2 | 1,371,016 | 0.0117 | 0.0470 | 0.0233 | 0.2260 | 0.1692 | 0.0209 |
| 100,000 ~ 499,999 | 124 | 19,508,960 | 0.7252 | 0.6690 | 0.7485 | 0.8950 | 0.8792 | 0.7463 |
| 50,000 ~ 99,999 | 40 | 2,978,409 | 0.2339 | 0.1021 | 0.9824 | 0.9971 | 0.9912 | 0.9817 |
| 20,000 ~ 49,999 | 2 | 63,639 | 0.0117 | 0.0022 | 0.9941 | 0.9993 | 0.9993 | 0.9941 |
| under 20,000 | 1 | 18,317 | 0.0058 | 0.0006 | 1.0000 | 1.0000 | — | — |
| G.C.R* | | | | | | | 0.2980 | |

$$*G.C.R(\text{Gini Concentration Ratio}) = \left(\sum_{i=1}^n X_i Y_{i+1} \right) - \left(\sum_{i=1}^n X_{i+1} Y_i \right)$$

Source: EPB, 1966 Population Census Report of Korea, 1969.

Appendix 2. Computation of Gini Concentration Ratio for Persons Living in Localities:1975

1975年 人口規模別「지니」集中比

| Size of Locality | Number of Localities | Population | Proportion | | Cummulative Proportion | | $X_i Y_{i+1}$ | $X_{i+1} Y_i$ |
|---------------------|----------------------|------------|------------|------------|-------------------------|-------------------------|---------------|---------------|
| | | | Localities | Population | Localities (Y_i) | Population (X_i) | | |
| All Localities | 173 | 34,706,620 | 1.0000 | 1.0000 | — | — | 2.1653 | 1.7563 |
| 3,000,000 and over | 1 | 6,889,502 | 0.0058 | 0.1985 | 0.0058 | 0.1985 | 0.0023 | 0.0016 |
| 2,000,000~2,999,999 | 1 | 2,453,173 | 0.0058 | 0.0707 | 0.0116 | 0.2692 | 0.0047 | 0.0036 |
| 1,000,000~1,999,999 | 1 | 1,310,768 | 0.0058 | 0.0378 | 0.0174 | 0.3070 | 0.0107 | 0.0063 |
| 500,000 ~ 999,999 | 3 | 1,913,726 | 0.0173 | 0.0551 | 0.0347 | 0.3621 | 0.2679 | 0.0314 |
| 100,000 ~ 499,999 | 122 | 18,849,976 | 0.7052 | 0.5431 | 0.7399 | 0.9052 | 0.8843 | 0.7365 |
| 50,000 ~ 99,999 | 41 | 3,130,320 | 0.2370 | 0.0902 | 0.9769 | 0.9954 | 0.9954 | 0.9769 |
| 20,000 ~ 49,999 | 4 | 159,155 | 0.0231 | 0.0046 | 1.0000 | 1.0000 | — | — |
| under 20,000 | — | — | — | — | — | — | — | — |
| G.C.R* | | | | | | | 0.4090 | |

Source: EPB, 197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ol.1, 1977.

Appendix 3. Computation of Gini Concentration Ratio for Persons Living in Localities : 1985

1985年 人口規模別「지니」集中比

| Size of Locality | Number of Localities | Population | Proportion | | Cummulative Proportion | | $X_i Y_{i+1}$ | $X_{i+1} Y_i$ |
|---------------------|----------------------|------------|------------|------------|------------------------|-----------------|---------------|---------------|
| | | | Localities | Population | Localities (Yi) | Population (Xi) | | |
| All Localities | 192 | 40,448,486 | 1.0000 | 1.0000 | — | — | 2.9856 | 2.4325 |
| 3,000,000 and over | 2 | 13,153,908 | 0.0104 | 0.3252 | 0.0104 | 0.3252 | 0.0051 | 0.0039 |
| 2,000,000~2,999,999 | 1 | 2,029,853 | 0.0052 | 0.0502 | 0.0156 | 0.3754 | 0.0078 | 0.0064 |
| 1,000,000~1,999,999 | 1 | 1,386,911 | 0.0052 | 0.0343 | 0.0208 | 0.4097 | 0.0149 | 0.0097 |
| 500,000~ 999,999 | 3 | 2,323,058 | 0.0156 | 0.0574 | 0.0364 | 0.4671 | 0.2214 | 0.0299 |
| 100,000~ 499,999 | 84 | 14,340,899 | 0.4375 | 0.3545 | 0.4739 | 0.8216 | 0.7574 | 0.4666 |
| 50,000~ 99,999 | 86 | 6,596,464 | 0.4479 | 0.1631 | 0.9218 | 0.9847 | 0.9795 | 0.9213 |
| 20,000~ 49,999 | 14 | 600,11 | 0.0729 | 0.0148 | 0.9947 | 0.9995 | 0.9995 | 0.9947 |
| under 20,000 | 1 | 17,281 | 0.0052 | 0.0004 | 1.0000 | 1.0000 | — | — |
| G.C.R* | | | | | | | 0.5531 | |

Source: EPB, 198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ol.1, 1987.

Appendix 4. Gini Cocentration Ratio and Index of Concentration for Departamentos Arrayed by Population Density:1966

1966年 人口密度에 의한 「지니」 集中比 및 集中係數

| Departmentos | Population | Area (km ²) | Population | | Proportion | | xi-yi | Cumulative Population | | Xi-Yi | Xi · Yi+1 | Xi+1 · Yi |
|--------------|------------|----------------------------|------------|--------------------|--------------|--------------------|--------|-----------------------|--------|--------|-----------|-----------|
| | | | Density | Population (xi) | Area (yi) | Population (Xi) | | Area (Yi) | | | | |
| Total | 29,159,640 | 98,490.8 | 296.1 | 1.0000 | 1.0000 | 0.4903 | - | - | - | 3.0314 | 3.3928 | |
| Kangwon | 1,831,185 | 16,618.2 | 110.2 | 0.0628 | 0.1687 | 0.1059 | 1.0000 | 1.0000 | - | 0.8313 | 0.9373 | |
| Kyongbuk | 3,627,706 | 19,777.4 | 183.4 | 0.1244 | 0.2008 | 0.0764 | 0.9373 | 0.8313 | 0.1060 | 0.5910 | 0.6758 | |
| Cheju | 337,052 | 1,811.9 | 186.0 | 0.0116 | 0.0184 | 0.0068 | 0.8129 | 0.6305 | 0.1824 | 0.4976 | 0.5052 | |
| Chungbuk | 1,548,821 | 7,432.9 | 208.4 | 0.0531 | 0.0755 | 0.0224 | 0.8013 | 0.6121 | 0.1892 | 0.4300 | 0.4580 | |
| Kyonggi | 2,576,498 | 10,791.4 | 238.8 | 0.0884 | 0.1096 | 0.0212 | 0.7482 | 0.5366 | 0.2116 | 0.3195 | 0.3540 | |
| Kyongnam | 3,175,146 | 11,944.4 | 265.8 | 0.1089 | 0.1213 | 0.0124 | 0.6598 | 0.4270 | 0.2328 | 0.2017 | 0.2352 | |
| Chonnam | 3,645,274 | 11,833.2 | 308.0 | 0.1250 | 0.1201 | 0.0049 | 0.5509 | 0.3057 | 0.2452 | 0.1022 | 0.1302 | |
| Chonbuk | 2,521,207 | 8,035.3 | 313.8 | 0.0865 | 0.0816 | 0.0049 | 0.4259 | 0.1856 | 0.2403 | 0.0443 | 0.0630 | |
| Chungnam | 2,902,941 | 8,710.1 | 333.3 | 0.0996 | 0.0884 | 0.0112 | 0.3394 | 0.1040 | 0.2354 | 0.0053 | 0.0249 | |
| Kwangju | 403,495 | 214.8 | 1,878.6 | 0.0138 | 0.0022 | 0.0116 | 0.2398 | 0.0156 | 0.2242 | 0.0032 | 0.0035 | |
| Incheon | 525,827 | 166.4 | 3,160.8 | 0.0180 | 0.0017 | 0.0163 | 0.2260 | 0.0134 | 0.2126 | 0.0026 | 0.0028 | |
| Pusan | 1,426,019 | 360.3 | 3,958.4 | 0.0489 | 0.0037 | 0.0452 | 0.2080 | 0.0117 | 0.1963 | 0.0017 | 0.0019 | |
| Daegu | 845,189 | 181.7 | 4,651.1 | 0.0290 | 0.0018 | 0.0272 | 0.1591 | 0.0080 | 0.1511 | 0.0010 | 0.0100 | |
| Seoul | 3,793,280 | 613.0 | 6,187.7 | 0.1301 | 0.0062 | 0.1239 | 0.1301 | 0.0062 | 0.1239 | - | - | |
| G.C.R. | | | | | | | | | | | 0.3614 | |
| I.C.* | | | | | | 0.2452 | | | | | | |

Source:EPB, 1966 Population Census Report of Korea, 1969.

$$* I.C(\text{Index of Concentration}) = \frac{1}{2} \sum_{i=1}^n |xi-yi|$$

Appendix 5. Gini Concentration Ratio and Index of Concentration for Departmentos Arrayed by
Population Density:1975—

1975年人口密度에 의한 「지니」 集中比 및 集中係數

| Departmentos | Population | Area (km ²) | Population Density | Proportion | | $x_i - y_i$ | Cumulative Population | | Xi · Yi | Xi · Yi+1 | Xi+1 · Yi |
|--------------|------------|----------------------------|-----------------------|-------------------------|-------------------|-------------|-----------------------|--------------|---------|-----------|-----------|
| | | | | Population (x_i) | Area (y_i) | | Population (Xi) | Area (Yi) | | | |
| Total | 34,704,984 | 98,774.21 | 351.4 | 1.0000 | 1.0000 | 0.6640 | — | — | — | 3.0423 | 3.4908 |
| Kangwon | 1,861,560 | 16,826.88 | 110.6 | 0.0536 | 0.1704 | 0.1168 | 1.0000 | 1.0000 | — | 0.8297 | 0.9465 |
| Kyungbuk | 3,547,783 | 19,626.61 | 180.8 | 0.1022 | 0.1987 | 0.0965 | 0.9465 | 0.8297 | 0.1168 | 0.5972 | 0.7005 |
| Chungbuk | 1,522,203 | 7,435.68 | 204.7 | 0.0439 | 0.0753 | 0.0314 | 0.8443 | 0.6310 | 0.2133 | 0.4692 | 0.5051 |
| Cheju | 411,732 | 1,820.03 | 226.2 | 0.0119 | 0.0184 | 0.0065 | 0.8004 | 0.5557 | 0.2447 | 0.4301 | 0.4382 |
| Kyungnam | 3,280,052 | 11,966.14 | 274.1 | 0.0945 | 0.1211 | 0.0266 | 0.7885 | 0.5373 | 0.2512 | 0.3282 | 0.3729 |
| Chonnam | 3,377,112 | 11,868.73 | 284.5 | 0.0973 | 0.1202 | 0.0229 | 0.6940 | 0.4162 | 0.2778 | 0.2054 | 0.2483 |
| Kyonggi | 3,239,125 | 10,872.02 | 297.9 | 0.0933 | 0.1101 | 0.0168 | 0.5967 | 0.2960 | 0.3007 | 0.1109 | 0.1490 |
| Chonbuk | 2,456,403 | 8,058.26 | 304.8 | 0.0708 | 0.0816 | 0.0108 | 0.5034 | 0.1859 | 0.3175 | 0.0525 | 0.0804 |
| Chungnam | 2,948,553 | 8,763.88 | 336.4 | 0.0850 | 0.0887 | 0.0037 | 0.4326 | 0.1043 | 0.3283 | 0.0067 | 0.0363 |
| Kwangju | 607,011 | 214.78 | 2,826.2 | 0.0175 | 0.0022 | 0.0153 | 0.3476 | 0.0156 | 0.3320 | 0.0047 | 0.0051 |
| Incheon | 800,007 | 166.36 | 4,808.9 | 0.0231 | 0.0017 | 0.0214 | 0.3301 | 0.0134 | 0.3167 | 0.0039 | 0.0041 |
| Pusan | 2,453,173 | 376.13 | 6,522.1 | 0.0707 | 0.0038 | 0.0669 | 0.3070 | 0.0117 | 0.2953 | 0.0024 | 0.0028 |
| Daegu | 1,310,768 | 178.32 | 7,350.7 | 0.0378 | 0.0018 | 0.0360 | 0.2363 | 0.0079 | 0.2284 | 0.0014 | 0.0016 |
| Seoul | 6,889,502 | 600.39 | 11,475.0 | 0.1985 | 0.0061 | 0.1924 | 0.1985 | 0.0061 | 0.1924 | — | — |
| G.C.R | | | | | | | | | | | 0.4485 |
| I.C | | | | | | 0.3320 | | | | | |

Source: EPB, 197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ol.1, 1977.

Appendix 6. Gini Concentration Ratio and Index of Concentration for Departamentos Arrayed by Population Density:

1985

1985年人口密度에 의한 「지니」 集中比 및 集中係數

| Departamentos | Population ¹⁾ | Area ²⁾ (km ²) | Population Density | Proportion | | $x_i - y_i$ | Cumulative Population | | Xi - Yi | Xi · Yi+1 | Xi+1 · Yi |
|---------------|--------------------------|--|-----------------------|-------------------------|-------------------|-------------|-----------------------|--------------|---------|-----------|-----------|
| | | | | Population (x_i) | Area (y_i) | | Population (Xi) | Area (Yi) | | | |
| Total | 40,448,486 | 99,143.32 | 408.0 | 1.0000 | 1.0000 | 0.8438 | - | - | - | 3.1496 | 3.6534 |
| Kangwon | 1,724,809 | 16,893.79 | 102.1 | 0.0426 | 0.1704 | 0.1278 | 1.0000 | 1.0000 | - | 0.8296 | 0.9573 |
| Kyongbuk | 3,010,945 | 19,440.72 | 154.9 | 0.0744 | 0.1960 | 0.1216 | 0.9573 | 0.8296 | 0.1277 | 0.6065 | 0.7325 |
| Chungbuk | 1,391,004 | 7,433.40 | 187.1 | 0.0344 | 0.0750 | 0.0409 | 0.8829 | 0.6336 | 0.2493 | 0.4932 | 0.5376 |
| Chonnam | 2,842,532 | 12,034.36 | 236.2 | 0.0703 | 0.1214 | 0.0511 | 0.8485 | 0.5586 | 0.2899 | 0.3710 | 0.4347 |
| Cheju | 488,576 | 1,824.81 | 267.7 | 0.0121 | 0.0184 | 0.0063 | 0.7782 | 0.4372 | 0.3410 | 0.3259 | 0.3349 |
| Chonbuk | 2,202,078 | 8,050.11 | 273.5 | 0.0544 | 0.0812 | 0.0268 | 0.7661 | 0.4188 | 0.3473 | 0.2586 | 0.2981 |
| Kyongnam | 3,516,660 | 11,855.25 | 296.6 | 0.0869 | 0.1196 | 0.0327 | 0.7117 | 0.3376 | 0.3741 | 0.1552 | 0.2109 |
| Chungnam | 3,001,179 | 8,835.18 | 339.7 | 0.0742 | 0.0891 | 0.0149 | 0.6248 | 0.2180 | 0.4068 | 0.0805 | 0.0710 |
| Kyonggi | 4,794,135 | 10,858.97 | 441.5 | 0.1185 | 0.1095 | 0.0090 | 0.5506 | 0.1289 | 0.4217 | 0.0107 | 0.0557 |
| Kwangju | 905,896 | 215.11 | 4,211.3 | 0.0224 | 0.0022 | 0.0202 | 0.4321 | 0.0194 | 0.4127 | 0.0074 | 0.0079 |
| Daegu | 2,029,853 | 455.06 | 4,460.6 | 0.0502 | 0.0046 | 0.0456 | 0.4097 | 0.0172 | 0.3925 | 0.0052 | 0.0062 |
| Incheon | 1,386,911 | 206.60 | 6,713.0 | 0.0343 | 0.0021 | 0.0322 | 0.3595 | 0.0126 | 0.3469 | 0.0038 | 0.0041 |
| Pusan | 3,514,798 | 434.52 | 8,088.9 | 0.0869 | 0.0044 | 0.0825 | 0.3252 | 0.0105 | 0.3147 | 0.0020 | 0.0025 |
| Seoul | 9,639,110 | 605.43 | 15,921.1 | 0.2383 | 0.0061 | 0.2322 | 0.2383 | 0.0061 | 0.2322 | - | - |
| G.C.R. | | | | | | | | | | | 0.5038 |
| I.C. | | | | | | 0.4219 | | | | | |

Source: 1) EPB, 198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ol.1, 1987.

2) EPB, 1986 Korea Statistical Yearbook, No. 33, 1986. 12.

Appendix 7. Rank and Size of Cities:1966

1966年 順位 및 規模別 都市

| Rank | City | Actual Population | Expected Population | Actual Minus Expected |
|------|----------|-------------------|---------------------|-----------------------|
| 1 | Seoul | 3,793,280 | 3,793,280 | — |
| 2 | Pusan | 1,426,019 | 1,896,640 | -470,621 |
| 3 | Daegu | 845,189 | 1,264,427 | -419,238 |
| 4 | Incheon | 525,827 | 948,320 | -422,493 |
| 5 | Kwangju | 403,495 | 758,656 | -355,161 |
| 6 | Daejon | 314,991 | 632,213 | -317,222 |
| 7 | Chonju | 220,432 | 541,897 | -321,465 |
| 8 | Mokpo | 162,166 | 474,160 | -311,994 |
| 9 | Masan | 154,600 | 421,478 | -266,878 |
| 10 | Suwon | 127,733 | 379,328 | -251,595 |
| 11 | Chongju | 123,666 | 344,844 | -221,178 |
| 12 | Ulsan | 112,848 | 316,107 | -203,259 |
| 13 | Chinju | 107,035 | 291,791 | -184,756 |
| 14 | Wonju | 103,810 | 270,949 | -167,139 |
| 15 | Kunsan | 102,327 | 252,885 | -150,558 |
| 16 | Yosu | 101,851 | 237,080 | -135,229 |
| 17 | Chunchon | 100,033 | 223,134 | -123,101 |
| 18 | Jeju | 87,369 | 210,738 | -123,369 |
| 19 | Kyongju | 85,728 | 199,646 | -113,918 |
| 20 | Chinhae | 80,496 | 189,664 | -109,168 |

Source: EPB, 1966 Population Census Report of Korea, 1969.

Appendix 8. Rank and Size of Cities:1975

1975年 順位 및 規模別 都市

| Rank | City | Actual Population | Expected Population | Actual Minus Expected |
|------|----------|-------------------|---------------------|-----------------------|
| 1 | Seoul | 6,889,502 | 6,889,502 | — |
| 2 | Pusan | 2,452,173 | 3,444,751 | −992,578 |
| 3 | Daegu | 1,310,768 | 2,296,500 | −985,732 |
| 4 | Incheon | 800,007 | 1,722,376 | −923,369 |
| 5 | Kwangju | 607,011 | 1,377,900 | −770,889 |
| 6 | Daejon | 506,708 | 1,148,250 | −641,542 |
| 7 | Masan | 371,917 | 984,215 | −612,298 |
| 8 | Chonju | 311,393 | 861,188 | −549,795 |
| 9 | Seongnam | 272,506 | 765,500 | −492,994 |
| 10 | Ulsan | 252,570 | 688,950 | −436,380 |
| 11 | Suwon | 224,145 | 626,318 | −402,173 |
| 12 | Mokpo | 192,958 | 574,125 | −381,167 |
| 13 | Chongju | 192,707 | 529,962 | −337,255 |
| 14 | Kunsan | 154,780 | 492,107 | −337,327 |
| 15 | Chinju | 154,646 | 459,300 | −304,654 |
| 16 | Chunchon | 140,530 | 430,594 | −290,064 |
| 17 | Anyang | 134,848 | 405,265 | −270,417 |
| 18 | Jeju | 135,081 | 382,750 | −247,669 |
| 19 | Pohang | 134,418 | 362,605 | −228,187 |
| 20 | Yosu | 130,623 | 344,475 | −213,852 |

Source:EPB, 197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ol.1, 1977.

Appendix 9. Rank and Size of Cities:1985

1985年 順位 및 規模別 都市

| Rank | City | Actual Population | Expected Population | Actual Minus Expected |
|------|------------|-------------------|---------------------|-----------------------|
| 1 | Seoul | 9,639,110 | 9,639,110 | — |
| 2 | Pusan | 3,514,798 | 4,819,555 | -1,304,757 |
| 3 | Daegu | 2,029,853 | 3,213,037 | -1,183,184 |
| 4 | Incheon | 1,386,911 | 2,409,778 | -1,022,867 |
| 5 | Kwangju | 905,896 | 1,927,822 | -1,021,926 |
| 6 | Daejon | 866,148 | 1,606,518 | -740,370 |
| 7 | Ulsan | 551,014 | 1,377,016 | -826,002 |
| 8 | Puchon | 456,292 | 1,204,889 | -748,597 |
| 9 | Masan | 448,746 | 1,071,012 | -622,266 |
| 10 | Songnam | 447,692 | 963,911 | -516,219 |
| 11 | Suwon | 430,752 | 876,283 | -445,531 |
| 12 | Chonju | 426,473 | 803,259 | -376,786 |
| 13 | Anyang | 361,577 | 741,470 | -379,893 |
| 14 | Chongju | 350,256 | 688,508 | -338,252 |
| 15 | Pohang | 260,691 | 642,607 | -381,916 |
| 16 | Mokpo | 236,085 | 602,444 | -366,359 |
| 17 | Chinju | 227,309 | 567,006 | -339,697 |
| 18 | Kwangmyong | 219,611 | 535,506 | -315,895 |
| 19 | Cheju | 202,911 | 507,322 | -304,411 |
| 20 | Iri | 192,269 | 481,956 | -289,687 |

Source: EPB, 198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Vol.1, 1987.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66, 1975, 1985.
- 經濟企劃院, 最近 人口動態 現況 및 新人口 推計, 1988.
- 經濟企劃院, 韓國人口統計年鑑, 1972
- 孔世權外, “人口變動에 따른 出産調節戰略 小考”, 人口保健論集, 第2卷 第2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 _____, “地域別 人口構造의 特性”, 人口保健論集, 第8卷 第1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
- _____, 韓國家族計劃事業,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 _____,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_____, “韓國 人口의 老齡化 特徵”, 人口保健論集, 第7卷 第2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內務部, 韓國都市年鑑, 1985.
- 朴柱文, “都市人口集中과 就業에 관한 研究”, 韓國人口學會誌, 第10卷 第2號, 韓國人口學會, 1987, 12.
- 朴柱文, 李時伯, “韓國의 都市人口 集中度에 관한 研究”, 韓國人口學會誌, 第9卷 第1號, 韓國人口學會, 1986, 7.
- 李時伯, “南北韓 人口의 長期展望과 人口學的 比較分析”, 韓國人口學會誌, 第8卷 第2號, 韓國人口學會, 1985.
- 曹愛姐外, “婦人의 就業과 出産力과의 關聯性 研究”, 人口保健論集, 第8卷 第1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
- _____, “韓國의 都市化 傾向에 관한 考察”, 韓國人口學會誌, 第6卷 第1號, 韓國人口學會, 1983.
- 韓國銀行, 韓國經濟年鑑, 1949, 1955.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全國家族保健 實態調查, 1985, 1988.
- 黑田俊夫, 日本人口の 分析, 一粒社, 昭化 43年.
- 館稔, 形式人口學 一人口現狀の 分析技法, 古今書院, 1960.
- Binstock, Robert H., and Shanias, Ethel,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76.
- Bureau of Statistics, Japan, *Report of Population Census*, 1920, 1930, 1935 and 1940.
- Caldwell, J.C., "Toward a Restatement of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 No. 3~4, 1976.
- Chang, Y.S., *Population in Early Modernization of Korea*,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65.
- Cho, Lee-Jay,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 of Korea, Papers of th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No. 29, East-West Center, Honolulu, 1973.
- Clark, Leon E., *Mortality American Style: A Tale of Two States*,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1977.
- Cowgill, D.O., "The Theory of Population Growth Cycle", *American J. of Sociology*, 1949.
- Davis, K,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29, 1963.
- Hawley, A.H., "Population Composition", *The Study of Population*(ed. by Hausen and Duncan), 1959.
- Institute of Medicine, *Infant Death: An Analysis of Maternal Risk and Health Car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973.
- Ishi, Y., "Historical Transition of Korean Population", in Minami (ed.), *Economic Analysis of Korean Population*, Institute for Developing Economics, Tokyo, 1971.
- Janer, J., "Population Growth in Puerto Rico and It's Relation to Time Changes in Vital Statistics", *Human Biology*, Vol. 7, 1945.
- Kim, C., *Population and Economy of Korea*, Tokyo, 1965.
- Kim, Yun, "Population Projections for the Rep. of Korea, 1955-1995", Census Council, Ministry of Home Affairs, *Basic Documents Pertaining to Korean Statistical Activities*, (Revised edition, 7), Seoul, 1960.
- Kirk, D., "A New Demographic Transition?" *Rapid Population Growth Consequence and Policy Implications*,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 Lopez, Alvaro, *Problems in Stable Population Theory*, Office of Population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1961.

- Lotka, Alfred J., *Theorie Analytique des Associations Biologiques, Deuxieme Partie;Analyse Demographique avec Application Particulière a l'espèce Humanine*, Paris, Hermann, 1939.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Health;United States, DHEW Publication 76~123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 Paul, John R., *Clinical Epidem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 Population Reference Bureau, 1986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ashington D.C., 1986.
- Singh, J. Shankar (ed.), *Populi*, J. of the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Vol, 14, No. 1, 1987.
- Retherford, Robert 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Reexamined", Paper Presented at 7th Seminar in Population, East-West Population Insititute, Honolulu, 1976.
- Shryock, Henry S.,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Vol. 1, U.S. Dept. of Commerce, 1976.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New York, 1986.
- United Nations, *The Prospects of World Urbanization*. New York, 1986.
- UNFPA, *Populi*, Vol.13, No.1, 1986.
- Wolinsky, Fredric D., *The Sociology of Health*, Little Brown & Company, 1980.

A Study on Structural Responses of Korea Population Transition

Sae-Kwon Kong* Ae-Jeo Cho** Eun-Joo Kim**

Overall review of population data shows that Korean population has experienced the drastic transition in this century.

Korean population was very stagnant under the Japanese colony, but began to be active in expansion due to the gradual decrease of mortality rate from 1910 to 1945. After the liberalization from Japanese colony in 1945, the political turmoil at that time divided the population to be a half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part of Korea. However, returnees from abroad added up the population. During the Korean War from 1950 to 1953, Korean population was disturbed by the high death tolls among the warfare and internal exchange of popu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population showed the rapid population increase owing to the high birth rate, and to the decrease of death rate with inception of developed health and medical techniques.

So-called baby boom period continued from 1955 to 1965, thus revealing the annual increasing rate 3 percent. Fertility control policy designed to meet the baby boom in the pre and post 1960's, focused on the decline of fertility rate considering the decreased mortality rate.

The main body of fertility control policy was named to be family planning programme, this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aimed at the change of children numbers and the prevention of unwanted pregnancy through the contraceptive use.

Family planning programme, systematically practiced over the country, made an impact on the high contraception rate and decrease of fertility rate. Total fertility rate per married woman was 6.0 in 1960, but decrease to 4.3 in 1970, to 2.8 in 1980, to the substitution level 2.1 in 1985. The accelerated fertility decrease lowered to 1.7 in 1988.

With this trend, Government is expecting the population increasing rate 0.85 percent in 2000 (with the total population 47 millions), and predicting the stationary population total in 2020 (with the total population 52 millions).

Government expectation will be available only with the prerequisite of the continuous total fertility rate 1.7 through the family planning programme. That is, Korean population transition will be pre-modernized just after the quartile of century, and will go into the full modernization period again after the quartile of century.

Drastic population transition changes the quantity control policy of population to the broad policy orientation such as changes of structure and adequat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s population transition brought about not the population growth itself but the socio-economic impact, population control policy has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cularly urban population showed the rapid increase compared with the total population increase due to the socio-political change and industrialization. Urban population comprised one-fifth of the total population in 1960, two-thirds of the present population, and will comprise four-fifths in 2000's, requesting the deep recognition of urban problems and rural problems relatively.

Urbanization explains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on the great cities and particularly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needs the dynamic urban development planning considering the urban function and living system.

The specific features of population transition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are mainly the problems of education, employment, marriage, housing and family, and ultimately the social pathology such as aging problem. Thus population policy should consider the socio-economic structure, health and medical system and social value system.

Recommendations

1. First step to meet the problems from population transition is how to develop the present family planning programme in effective way. As stagnant population is available through the continuous family planning programme accomplishment, fertility control policy is necessary for the continuation of the stationary population.

While family planning programme has emphasized on the contraceptive distribution just aiming at the population quantity control, it revealed the side effects of contraception and the popular induced abortions. And more small children norm brought about child bearing and educational problems in addition to generation conflict within family and family dissolution.

In this aspect the very concept of "family planning"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family life planning passing over the just specific child bearing control.

Family life planning should make all the preparations and plans for the family formative period with marriage, the family growing period with education of children and couple life, and the family reductive period with the single aged family.

Therefore the simple purpose of family planning is transferring to the family health and family welfare from the contraceptive distribution service.

Family planning programme should systematize the contraceptive distribution service in the quality control aspect so as to accomplish the aimed purpose above, and retrain the grass root level workers.

Additionally a device should be drawn up to derive the induced abortions into the effective contraception and to contribute sex education to the adolescents and premarital target women as a social problem solving method.

2. Secondly family health programme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hronic disease control and the health improvement based on the family unit. Thus family health programme can include the improvement of diet, management of nutrition, home environment and sanitation, geriatric diseases and the aged health, and multiple purposed and systematic health services.

3. Thirdly planning and service related to family welfare are much more necessary than

ever, with the prevailing family nuclearization and children education of the employed parents. Family welfare planning can include service development broadly covering the children bearing and education, role share between couples, support for the aged.

4. Lastly, overall population control policy and coordinatio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on a country level, as the drastic population transition requests the combined approach to population policy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So as to dilute the urban population concentration, not the mioptic regional development but the integral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prepared focusing on the country utilization and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Here urgent is integral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policy.

The aging trend is inevitable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and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change and socio-economic and welfare needs. The spill over effect from baby boom period in 1960's is now requesting the solution of employment and housing problems, manpowe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Herewith is necessary the diversified strategy for the aged society in 2000's. And soft policy should be prepared for the family life and career women considering the increasing employment of women.